

총대, 학복위, 졸준위 선거 30일 진행

총학생회 후보자 결국 공식으로 남아



▲총대 기호 1번 '침'



▲총대 기호 2번 '오순도순'



▲인문대학생회 후보 '예다솜'

2012학년도 총대의원회,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 선거가 오는 30일 치러진다. 당초 투표는 29-30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총학생회 후보자가 사퇴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선거일정을 대의원총회가 열리는 30일 낙산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총대의원회 후보 기호 1번 '침' 선거본부장은 정의장에 이해선(멀티 3), 부의장에 박아름(영여영문 3)학생이 출마했다. 이해선 정의장 후보는 "지난

3년간 다양한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배운 것이 많다. 하지만 그만큼 고쳐야 할 점도 많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마지막 학년을 학교와 학우들을 위해 보내고 싶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들은 ▲대의원 임명장 수여 및 식고취 ▲공정한 선관위 정립 ▲투명한 정책 및 예산감사 ▲학우들의 의견 직접 수렴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총대의원회 후보 기호 2번 '오순도순' 선거본부장은 정의장에 송수인(경영 3), 부의장에 조미경(정시 2)학생이 출마했다. 이들은 ▲대의원을 위한 세미나 ▲대의원학교 개선 ▲감사양식 통일 및 감사자료 공개 ▲학우들과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공약으로 세웠다.

송수인 정의장 후보는 "성북구의 박아름 부의장 후보는 "현재 대의원회 1대1로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SNS, 익명 소리를 통해 대의원이 아닌 일반학우들의 의견도

수용하겠다."고 공약을 설명했다. 총대의원회 후보 기호 2번 '오순도순' 선거본부장은 정의장에 송수인(경영 3), 부의장에 조미경(정시 2)학생이 출마했다. 이들은 ▲대의원을 위한 세미나 ▲대의원학교 개선 ▲감사양식 통일 및 감사자료 공개 ▲학우들과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공약으로 세웠다.

송수인 정의장 후보는 "성북구의 박아름 부의장 후보는 "현재 대의원회 1대1로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SNS, 익명 소리를 통해 대의원이 아닌 일반학우들의 의견도

다. 기본적인 약속이지만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총대의원회의 감사·견제 역할을 긍정하게 수행해 화합하고 발전하는 한성대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학복위는 '도깨비' 선거본부가 단선으로 출마해 정위원장에 김진호(컴공 3), 부위원장에 최수화(경영 2)학생이 입후보했다. 졸준위는 정위원장에 신우섭(경영 3), 부위원장에 하정민(한국어 2)학생이 '두드림' 선거본부로 단독출마했다.

한편 중선관위는 총학생회 후보자 재등록 공고를 냈으나 접수한 후보자가 25일 등록을 마감했다. 인문대 학생회는 '예다솜' 선거본부의 정학생회장 후보에 임우정(한국어문 2), 부학생회장 후보에 정호빈(정치 1)학생이 단선으로 출마했다. 이들은 ▲인문인 알리미 ▲등록금인상 반대 ▲시험기간 쉼프린쇄소 ▲간식배부 ▲플랑 및 자보 도우미 ▲취업간담회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밖에 단과대 학생회선거는 내년 3월 보궐로 넘어갔다.

한편 중선관위는 총학생회 후보자 재등록 공고를 냈으나 접수한 후보자가 25일 등록을 마감했다. 인문대 학생회는 '예다솜' 선거본부의 정학생회장 후보에 임우정(한국어문 2), 부학생회장 후보에 정호빈(정치 1)학생이 단선으로 출마했다. 이들은 ▲인문인 알리미 ▲등록금인상 반대 ▲시험기간 쉼프린쇄소 ▲간식배부 ▲플랑 및 자보 도우미 ▲취업간담회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밖에 단과대 학생회선거는 내년 3월 보궐로 넘어갔다.

한편 중선관위는 총학생회 후보자 재등록 공고를 냈으나 접수한 후보자가 25일 등록을 마감했다. 인문대 학생회는 '예다솜' 선거본부의 정학생회장 후보에 임우정(한국어문 2), 부학생회장 후보에 정호빈(정치 1)학생이 단선으로 출마했다. 이들은 ▲인문인 알리미 ▲등록금인상 반대 ▲시험기간 쉼프린쇄소 ▲간식배부 ▲플랑 및 자보 도우미 ▲취업간담회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밖에 단과대 학생회선거는 내년 3월 보궐로 넘어갔다.

오지영 기자 gujyomee@hansung.ac.kr

12월 16일까지 등록금 인상분 지급 예정

지급 범위 등 논란 가능성 있어

지난 18일 열린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 등록금 인상분 지급 범위와 날짜가 확정되었다. 지급 범위는 이번 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다. 단, 올해 등록금이 인상되기 전에 등록을 마친 학생은 제외된다. 지급은 오는 12월 16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정해진 범위에 대한 논란 가능성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올해 8월에 졸업한 학생들은 1학기 등록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분을 지급받을 수 없다. 또 1학기 등록 후 휴학 등의 이유로 2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김태성 총학생회장은 "8월 졸업생들은 추가로 수강한 학점이 몇 학점인지, 그 금액에 따른 지급액이 얼마인지를 전부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이를 전

부 고려하자면 올해 안에 지급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오범석(학생지원팀)팀장은 "이번에 전해지는 문은 학교가 환급을 해주지 않는 금액이 아니라 장학금으로서 전달되는 금액이다. 장학금의 경우,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8월 졸업생들이 제외되었다."고 덧붙였다.

제외 대상이 된 학생들은 약 300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비록 장학금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환급으로 알고 있던 졸업생들 사이에 이 문제가 알려질 경우 오해 및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문제는 이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돈이다. 학생회 추산으로 약 3천만 원의 돈이 학생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남게 되는데, 이에 따라 3천만 원이

나 되는 등록금 인상분이 어디에 쓰일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학교 측에서는 지금까지의 방침 그대로 이 돈을 수혜 장학금으로 썼으면 한다는 입장을 학생회 측에 제시했다. 그러나 학생회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다른 방식의 장학금으로 돌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태성 총학생회장은 "학생회 자체적으로 이 금액을 '총회 장학금' 등으로 만들어 따로 운영하지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총회 개최', '총장의 입장 표명' 등으로 하반기에 수많은 논란이 되었던 등록금 인상분 지급 날짜와 방식 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되었다. 하지만 아직 마무리해야 할 문제들이 어떻게 결정돼 학내구성원과 학교 전반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학교 최초 복수학위 프로그램 체결

우리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와 텍사스 주립 대학(University of Texas in Dallas) (이하 UTD)의 복수학위(Dual Degree) 프로그램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김일환(대외협력팀) 팀장은 "현재 체결에 필요한 협정서에 우리학교가 사인했으며, 그 협정서를 11월에 UTD에 전달했다. 아직 UTD에서 정확한 답은 오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상황을 밝혔다.

'복수학위 프로그램'이란 재학하는 동안 두 개의 학교를 번갈아 다니고 두 개의 학위를 받는 제도이다.

우리학교에서는 그간 교환학생이나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번처럼 외국대학과의 협정을 통해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대해 조세홍(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는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에 비해, 우리학교는 지금까지 외국과의 교류가 많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일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말했다.

이번에 체결된 복수학위 프로그램은 통칭 '2+2 프로그램'으로 우리학교에서 먼저 2년을 재학하고 UTD에서 다시 2년을 재학하게 된다. 현재 시행 시점은 내년 8월 정도로 예상되며, 최대 5명의 학생이 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특전이 적용되어 우리학교에 내는 등록금 수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

조세홍 교수는 "이번 복수학위 프로그램의 의미가 단순히 멀티미디어 공학과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이 생기면 다른 과에서도 이를 본받으려는 노력을 보일 것이며, 이런 노력들이 학교를 바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삼 학 승

무관심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학생들의 무관심은 어디까지인가. 요즘 드는 생각이다. 지난 2009년과 2010년에는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총학생회 선거가 부결되더니 이번에는 한 학생이 총학생회 후보 등록을 했다가 사퇴했다. 이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가 후보등록 기간을 연장했지만, 선뜻 나는 이가 없어 급기야 선거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때문에 이번 총선은 총대의원회, 학생복지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의 투표 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세 공개기구장을 선출하는 것은 대의원들의 몫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선거 자료가 불어도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들이 어떤 공약을 내걸고 후보로 나섰는지, 누가 후보로 등록했고 누가 당선될 지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다.

학생들이 관심이 없는 것은 비단 선거 뿐만 아니다. 지난 15일, 창의관 소강당에서 열린 사회과학대 사업 공청회에는 단 한 명의 학생도 참여하지 않았다.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에 새로 꾸러질 학생회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는 정말 좋았다. 하지만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참여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다면 이는 유명무실할 뿐이다. 아무리 잘 차려놓은 밥상에 먹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 음식물 쓰레기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

물론 낙산체전과 사회과학대 사업 공청회 날짜가 겹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에도 참가자 0명이라는 것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후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학생들은 사업공청회가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사업공청회는 참여한 학생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진행되었다.

참석자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행사를 진행하기보다는 홍보를 좀 더 한 후에 날짜를 미뤄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명색이 사업공청회인데 그 동안의 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학생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학생들의 몫이 아니다. 학생들의 참여 없이도 사업공청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 또한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학생들의 무관심이 극에 달해있는 요즘, 오는 28일에는 중선관위가 진행하는 공개기구 정책토론회가 있을 예정이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하는 학생이 많을수록, 공약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이 많을수록 새로운 꾸러질 공개기구의 입지가 넓어지고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의 범위 또한 넓어질 것이다. 과연 중선관위는 정책토론회 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인가, 그리고 대의원 학생들의 선거 참여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는 중선관위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제이다.

김하늘 편집국장

2 2012 단과 학생회 대부분 건설

6, 7, 8 제26회 한성문화상 당선작 및 심사평

5 꽃미남 마케팅 '님도 보고 뽕도 따고'

11 한성대신문 35주년 창간 특집면


지면 안내

학생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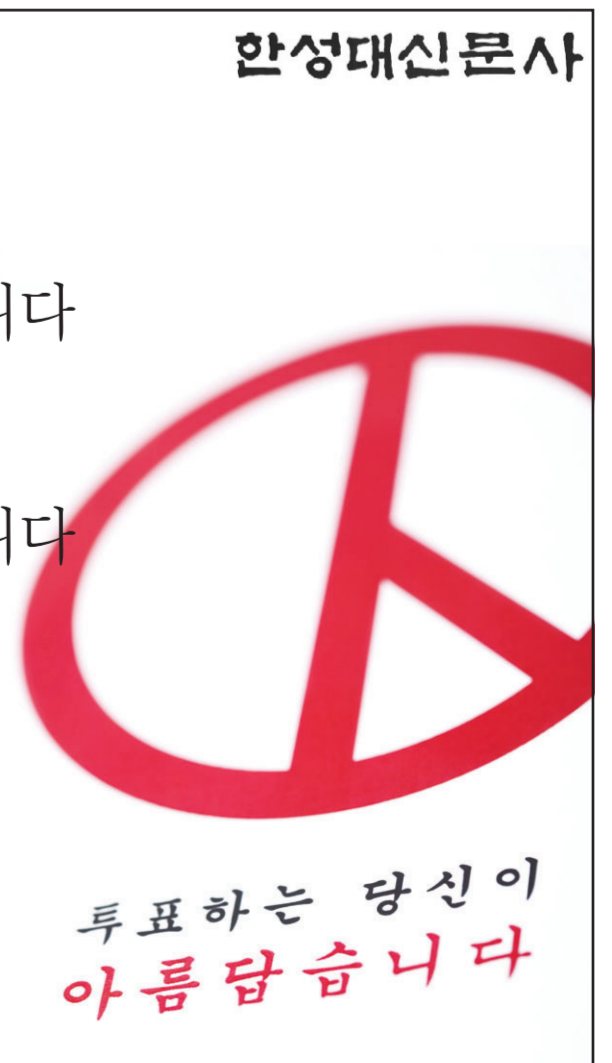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8일 오후 2시 소강당 정책토론회
총학생회 : 기말고사 기간 열람실 개방
아간총학생회 : 12월 14일까지 스카캠프 참가신청 접수

사 령

변
수습기자 이희년(역사문화 1)



이 투표지는 단순한 종이 아닙니다
한성대학교의 미래를 바꿀 지표입니다



투표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012 단과 학생회 대부분 건설

11월에 진행된 모든 학과 학생회장 선거에서 학생회가 건설되었다.

인문대

▲한국어문학부는 지난 16~17일 재적인원 361명 중 225명이 투표해 투표율 62.6%를 기록했다. 투표 결과, 찬성 176표(78.2%), 반대 23표(10.2%), 무효 26표(11.6%)로 정학생회장에 박선민(한국어문 3)·부학생회장에 정영지(한국어문 2), 김지산(한국어문 1) 학생이 당선됐다. 선거본부(이하 선본) '해움'은 공약으로 스터디 장려 △학회실 내 소시화 설치 △소모임 활성화 △학회실 환경 개선 △선후배간 화합도모를 약속했다. 이들은 "항상 여러분을 위해 힘쓰고자하고 생각하고자하는 그런 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비록 1년이라는 시간은 짧겠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해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당선소감을 전했다.

▲영어영문학부는 지난 23~24일 재적인원 343명 중 229명이 투표해 투표율 66.7%를 기록했다. 투표 결과 기호 1번 112표(48.9%), 기호 2번 103표(45%), 무효 14표(6.1%)로 정학생회장에 심광보(영어영문 2)·부학생회장에 정승민(영어영문 2) 학생이 당선됐다. 이들은 공약으로 △중

고도서 컴퓨터 △탐구관 책상 교체 △시험시간 간식배부 △전공도서 제본을 약속했다. 심광보 당선자는 "치열한 경선을 뚫고 힘들게 당선된 만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다. 학우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당선소감을 전했다.

▲역사문화학부는 지난 16~17일 투표가 이뤄졌다. 투표에는 총 177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찬성 135표(76.3%), 반대 18표(10.2%), 무효 28표(15.8%)로 정학생회장에 임창민(역사 3)·부학생회장에 이정현(역사 1), 안정규(역사 1) 학생이 당선됐다. 선본 '비상'은 공약으로 △학회실 환경개선 △소모임 개편 및 활성화 △집행부 명가제 실시 △학구적인 학부 분위기 정착 △선후배간 교류 활성화 △대의원 역할 강화를 약속했다. 이들은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며 한해를 보낼 것이다. 유세 때도 말씀 드렸듯이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는 학생회를 만들겠다."고 당선소감을 전했다.

사회과학대

▲행정학과는 지난 17~18일 재적인원 397명 중 212명이 투표해 투표율 53.4%를 기록했다. 투표 결과, 찬

성 138표(65.1%), 반대 44표(20.7%), 무효 30표(14.2%)로 정학생회장에 최보민(행정 4)·부학생회장에 사민창(행정 1), 박재형(행정 1) 학생이 당선됐다. 이들은 △이벤트 및 사업진행 평가 조사 △체전 종목별 MVP선정 △행사 후 장부와 불장내역 공개 △과실 환경개선 및 건의사항 수렴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들은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참여해 주신 학우여러분께 감사한다. 보다 더 나은 행정학과를 위해 열심히 하는, 참여의 진목 도모와 부동산학과의 발전에 힘쓰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부동산학과는 지난 17일 재적인원 178명 중 112명이 투표해 투표율 62.9%를 기록했다. 투표 결과, 찬성 93표(83%), 반대 19표(17%)로 정학생회장에 진기혁(부동산 2)·부학생회장에 윤정훈(부동산 1) 학생이 당선됐다.

이들은 △유대감 형성 위한 행사 추진 △과실환경개선 △소모임 활성화 지원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진기혁 당선자는 "다양한 행사를 통한 학우들의 친목 도모와 부동산학과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리고 저에게 반대표를 던져주신 학우분들에게는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명심하고 부동산학과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당선소감을 전했다.

예술대

▲리뷰패션산업학과와 애니제품디자인학과는 12월 중에 선거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과대

▲멀티미디어공학과는 지난 14~15일 재적인원 271명 중 161명이 투표해 투표율 59.4%를 기록했다. 투표 결과, 찬성 130표(80.7%), 반대 15표(9.3%), 무효 18표(10.2%)로 정학생회장에 김성재(멀티 3)·부학생회장에 최서운(멀티 1) 학생이 당선됐다. 이들은 △학생회실 개선 △학과 바깥막이 설치 △학과 행사 추진의 공약을 내걸었다.

▲정보통신공학과는 지난 16~17일 재적인원 267명 중 171명이 투표해 투표율 64%를 기록했다. 투표 결과, 찬성 151표(88.3%), 반대 10표(5.8%), 무효 10표(5.8%)로 정학생회장에 이종혁(정보 1)·부학생회장에 이동현(정보 1) 학생이 당선됐다. 이들은 공약으로 △학생회실 개선 △학과행사 활성화 △타과와의 교류 증진 △소모임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이들은 "부족한점이 많지만, 전대 학생회장들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학내를 계속해서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소감을 전했다.

▲산업경영공학과는 지난 14~15일 재적인원 330명 중 232명이 투표해 투표율 70.3%를 기록했다. 투표 결과, 찬성 202표(87.0%), 반대 16표(6.9%), 무효 13표(5.6%)로 정학생회장에 박소라(산공 2)·부학생회장에 이영철(산공 1) 학생이 당선됐다. 이들은 공약으로 △학회실 재정부 △타과와의 교류 증진 △소모임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들은 "입후보 당시 실천하기로 했던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할 것이다. 학과 생활을 하면서 선후배 간에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는 학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소감을 전했다.

▲기계시스템공학과는 지난 14~15일 재적인원 360명 중 213명이 투표해 투표율 59.2%를 기록했다. 투표 결과, 찬성 159표(74.6%), 반대 25표(11.7%), 무효 29표(13.6%)로 정학생회장에 김민준(기계 1)·부학생회장에 홍성훈(기계 1) 학생이 당선됐다. 이들은 공약으로 △공학관 6층 정수기 설치 △선후배간 교류 증진 등을 약속했다. 김민준 당선자는 "선후배님들의 한 표 한 표에 감사드립니다. 보다 더 활기찬 학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소감을 전했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간주린소식

학생들 무관심 속 사대 사업공청회 열려

지난 15일 오후 2시 창의관 소강당에서 사회과학대 사업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1학기 예·결산안 ▲2학기 예산안 ▲사업만족도 조사 결과 ▲방중·2학기 사업 설명과 질의응답 및 경품추첨의 시간을 가졌다.

모두 284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이 내년도 사회과학대 학생회에 바라는 점으로는 △학생관리 대변 33%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 27% △신속한 의사소통 20% △사회이슈에 대한 화두 제시 13% △기타 7%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다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와 예·결산안은 사회과학대 학생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1학기 사업공청회에 34명의 학생이 참석한 것과 달리 이번 공청회 참여율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병석 전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은 "참석인원이 없어 아쉽기는 하지만 후회는 없다. 학생회는 학우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만큼 다른 학생회도 학우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FLASH 교내 오픈세션 개최

오는 30일 창의관 소강당에서 가치투자연구회 FLASH의 교내 오픈세션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저녁 6시~8시에 진행되며, 우리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FLASH는 매주 수요일마다 정기세션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공개하는 세션을 마련했다. 김상현(경영 4) FLASH회장은 "학생들에게 주식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것뿐 아니라, 동아리 자체의 인지도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세션을 준비했다"며 오픈세션의 기획의도를 밝혔다.

오픈세션의 내용은 주식 투자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최근 유망 기업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번 세션에서는 오리온과 롯데쇼핑 분석이 이뤄진다. 이 두 기업 중 학생들에게 더 좋은 평가를 얻는 기업 분석 내용은 서울 북부 대학 연합(UIC) 세션에 사용된다.

전국애플작터 경진대회 동상 수상

지난 25일 열린 전국애플작터 경진대회에서 우리학교 애플작터 출품작 5개 중 2개의 애플이 동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25개 애플작터에서 예산을 거친 125개 애플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우리학교는 정보시스템공학과에 재학 중인 안지우, 전성화 학생이 '포시즌' 팀으로 출품해 동상을 받았고, 우리학교 로봇연구소의 현승철 학생과 한국산업기술대에 재학 중인 윤현성, 김연진 학생으로 구성된 연합팀 '슈퍼파이버' 팀도 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수상한 작품들은 앱스토어에서 'fourseason'과 안드로이드 마켓의 '뮤직켓'을 입력하면 검색가능하다.

2011 동계 한성 영어캠프 접수받아

동계 한성 영어캠프가 12월 19~30일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자는 수준별 토의특강을 하는 오전 프로그램과 영어회화와 토의 스피킹 중 하나를 선택하는 오후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출석률이 80%를 넘을 경우 강좌당 5만원의 예치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신영현(언어교육원) 교수는 "지난 하계 영어캠프를 수강한 학생들의 토의접수가 평균 40점 향상됐다. 캠프스 안에서 무료로 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양영어실은 오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

동정란

서은경(지식정보학부)교수 서교수는 지난 11월 11일 한국정보관리학회 총회에서 제15대 학회장으로 선출되며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학회장으로 학회 운영을 진행한다.

이기항(이류패션산업전공)교수 이교수는 지난 11월 1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5회 이기항 예술의상쇼, '춤추는 단청'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불교 여성개발원초대 'agora 여성광장 기금마련 문화제'를 위해 열렸다.



새로운 카페 Grazie 오픈

미래관 1층에 새로 단장한 카페 Grazie에서 학생들이 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다.

오지영 기자 guiyomee@hansung.ac.kr

총여학생회, 총학생회로 편입되나

총여학생회(이하 총여)를 학생회칙에서 삭제하고 총학생회의 산하 특별기구로 편입시키는 회칙 개정안이 오는 30일 열리는 대의원총회에 상정된다.

김태성(정보 4) 총학생회장은 지난 22일, 상임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총여 회칙 개정안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김태성 총학생회장은 총여를 총학생회 산하의 특별기구로 만드는 이유로 ▲총여는 지난 2006년을 마지막으로 세워지지 않았다 ▲여성에 관한 공약을 꾸준히 제시해야 한다 ▲학생회에 대한 여학우들의 신뢰감 상승을 위하여 ▲총여에 책정된 장학금을 사용해야 한다 ▲12년도에도 후보자가 나오지 않았다 등을 제시했다.

그는 "그동안 총여의 공적으로 인해 간부장학금이 책정되었던 금액은 적립금으로 환수됐다. 총학생회 아래에 특별기구를 매년 설치하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총학생회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학교를 견제하는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며 이번 개정안의 합리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 "몇 년 동안 총여가 건설되지 않았다. 총여가 있을 때만 공약이 세워지면 학생회에 대한 여학우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총여가 총학생회 산하 기구가 되면 매년 여학우들을 위한 공약을 세워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총여 간부를 희망하는 학우의 선거 부담을 덜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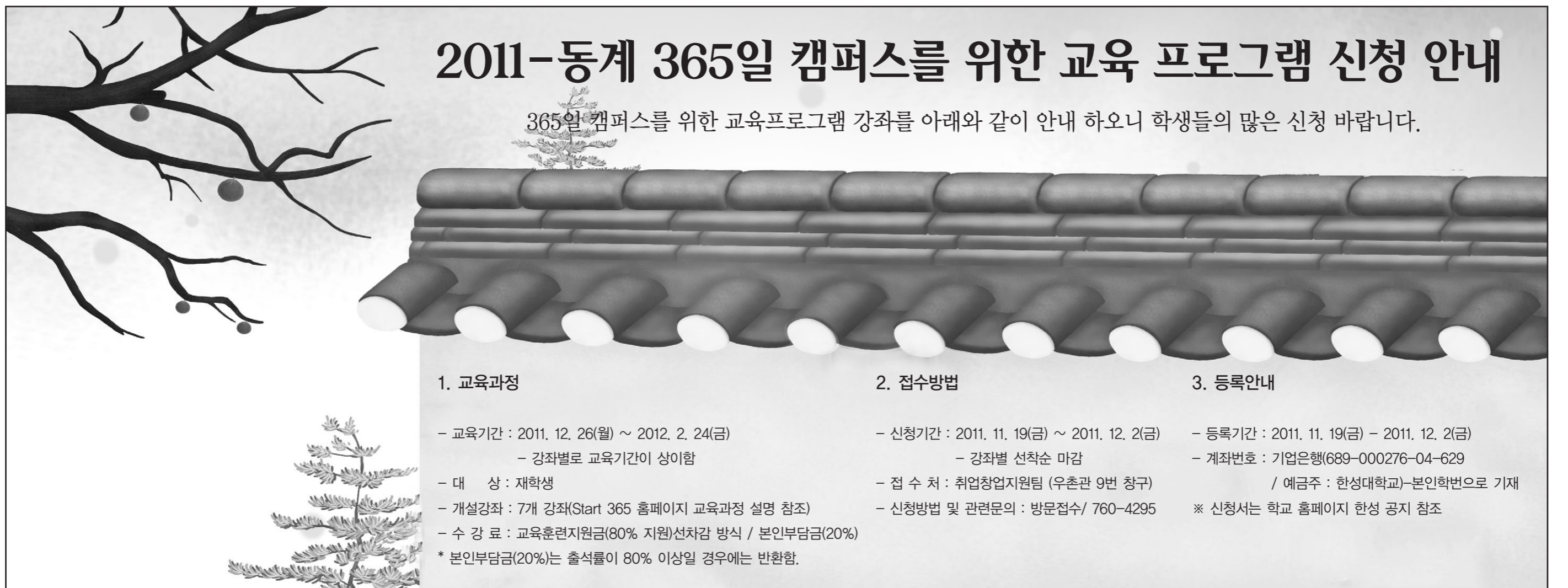
하지만 회칙상 총학생회는 총여의 인원을 전부 수용할 수 없다. 때문에 총여에 책정된 간부장학금을 특별기구에 전액 지급할 수 없다는 단점이 발생한다. 이에 김태성 총학생회장은 "수용 외 인원에 대한 간부장학금은 공약실현금으로 돌리면 된다. 공약실현을 한결 수월하게 만들 것"이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총여의 특별기구화에 대한 학생들

의 의견은 다양하다. 하지원(생활 1)학생은 "현재의 총여는 유명무실하다. 여태껏 총여의 존재도 몰랐다. 반면 특별기구는 후보가 나오지 않아도 매년 활동할 수 있다. 특별기구가 여학생들의 권리를 실현시켜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한편 노수린(컴공 1)학생은 "옛날과 달리 여성의 지위는 남성과 동등해졌다. 여학생만을 위한 기구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라며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보다 바뀐 것처럼 성별 구분 없이 학생 전체의 복지를 강화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김태성 총학생회장은 "확대된 영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총여의 행보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나왔다. 이러한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여학생 특별기구의 명칭과 역할을 수정한 회칙 개정안이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지영 기자 guiyomee@hansung.ac.kr



2011-동계 365일 캠퍼스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신청 안내

365일 캠퍼스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강좌를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1. 교육과정**
 - 교육기간 : 2011. 12. 26(월) ~ 2012. 2. 24(금)
 - 강좌별로 교육기간이 상이함
 - 대 상 : 재학생
 - 개설강좌 : 7개 강좌(Start 365 홈페이지 교육과정 설명 참조)
 - 수 강 료 : 교육훈련지원금(80% 지원)선착감 방식 / 본인부담금(20%)
 - * 본인부담금(20%)는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에는 반환함.
- 2.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11. 11. 19(금) ~ 2011. 12. 2(금)
 - 강좌별 선착순 마감
 - 접 수 처 : 취업창업지원팀 (우촌관 9번 창구)
 - 신청방법 및 관련문의 : 방문접수 / 760-4295
- 3. 등록안내**
 - 등록기간 : 2011. 11. 19(금) ~ 2011. 12. 2(금)
 - 계좌번호 : 기업은행(689-000276-04-629)
 - / 예금주 : 한성대학교-본인학번으로 기재
 - * 신청서는 학교 홈페이지 한성 공지 참조

'캠퍼스 주류 반입금지' 법안을 두고 의견 엇갈려

학교는 공부를 하는 곳 vs 지나친 자율권 침해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지난달 18일 초·중·고교와 대학 등 학교 내 주류 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을 비롯해 9명의 의원은 공동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안에서 "학교장 및 대학총장이 인정하는 교육적 목적 외의 초·중·고는 물론 대학을 포함한 모든 교내에 주류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고 의원은 "2010 청소년유해환경정착 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응답자 중 1회 평균 음주량이 소주 1병 이상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지난해 19.6%에 이른다고 하며 "특히 매년 발생하는 대학 내 음주 사망 사고는 최근 성범죄로도 확산되는 등 잘못된 음주문화가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청소년 최초 음주 평균연령은 14세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손실은 12조원에 이르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가 학생들의 음주문화에 대해 관련한 사회적 인식에도 있음을 지적했다.



비례 적용해 19세 성인남녀 52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조사에서는 법안 통과 찬성자가 79.9%, 반대자 13.3%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달 22일,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한 리얼미터(여론조사전문기관)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캠퍼스 주류 반입금지법'이 음주개선에 도움이 되냐? 라는 질문에 43.4%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보였고, 38.5%가 '교내에서 음주를 하는 일이 많아질 것 같아 실효성은 없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한 대학생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이 주제로 열렸던 케이비TV '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는 면학분위의 조성과 캠퍼스 청결을 위해 교내주류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파와 학교에서 금지를 한다고 해도 다른 곳에서도 마실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맞섰다.

강현민(성공회대)교수는 이날 토론

에서 "대학생이라는 집단의 범위가 너무 모호하고 넓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인구는 약660만 명 정도이고, 20대의 절반인 340만 명이 대학생으로 집계되어 있다"며 "음주문화의 문제는 20대 전반의 문제이지 대학생의 문제로 한정지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기중(국민대)교수는 "음주사고는 과거와는 다르다. 예전보다 대학에서의 술장권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집단이 소속되어 있는 개인으로서 술자리나 술잔을 거부하기 어려우므로 지꾸 마시다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며 반박했다. 반면 서희숙(한국외대)선임교수는 "대학생이 되어 과도한 입시경쟁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이 약간의 일탈을 경험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음주사고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억지로 술을 권하는 문화 때문인 경우가 빈번하고 음주사고의 발생률은 교내보다 교외의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어떨까. 이우내(경희대 4학생)은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므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교내에서 술을 마시면 질서가 흐트러지고 사고도 많아지므로 법안에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은실(성균관대 4학생)은 "극단적인 폐쇄는 반발심에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금지를 하지 말고 적정량을 허용한다면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남궁영(지정 4학생)은 "축제때도 술이 없다면 캠퍼스의 낭만이 없어질 것"이라고 의견을 나타냈다.

이선화(한국어문 3학생)은 "대학생은 법적으로 미성년자도 아니고, 술을 마실 권리가 있다. 학교 외에 다른 곳에서도 술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강압적인 방법으로는 반발심만 일으킬 뿐, 효력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정민(무용 4학생)은 "주점운영도 축제구성의 한 부분인데 고등학교 축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며 "차라리 총학생회에서 축제 때 주점에 들어가 술 양을 정해서 각 과에 제공하고 폐점시간을 정하는 등의 절제도를 한다면 모두가 즐겁게 있을 수 있는 축제"라고 말했다.

"즐겁다"는 뜻의 '樂'이 정도를 지나치면 '떨어진다'는 '落'이 될 수도 있다.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대학 당국의 대학음주문화에 대한 관심과 우리들의 자발적인 절제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부**

통계로 본 대학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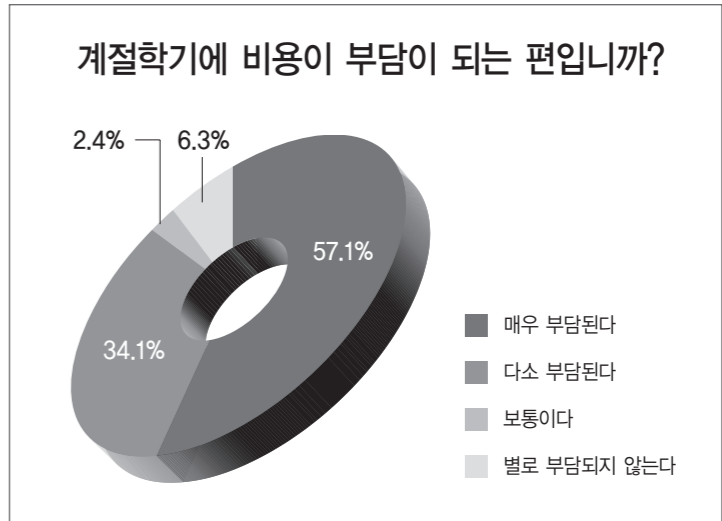
등록금도 부담인데 계절학기까지?

대학생들이 정규학기 외에 계절학기에 들어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가 대학생 3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5.2%가 계절학기를 듣는다고 밝혔다. 계절학기에 듣는 과목의 수는 '한 과목'(44.4%)이 가장 많았으며 '두 과목'(43.7%), '세 과목 이상'(11.9%)을 듣는 학생들도 많았다.

학생들은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가장 큰 이유로 '미리 학점을 따놓기 위함'(43.7%)을 들었다. 취업 준비를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학점을 방학 중에 미리 이수해 놓겠다는 것이다. 또한 '학점이 낮은 과목을 재수강하기 위해'(37.3%), '졸업학점이 모자라서 학점을 채우기 위해'(11.9%)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학기에 들어는 비용은 평균 3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31.7%)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50만원 이상'(17.5%)의 고액을 지출하는 경우도 상당했었다. 그 외에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16.7%),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15.1%), '10만원 미만'(10.3%),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8.7%)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국립대 학생의 경우 계절학기에 투자하는 비용이 평균 20만원선이었으나 사립대는 평균 34만원선으로 사립대 학생들이 계절학기 등록



금 비용의 부담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를 넘는 학생들이 계절학기 등록금 금액에 대해 '매우 부담이 된다'(57.1%)고 대답했으며, '다소 부담이 된다'(34.1%)는 응답도 3분의 1을 넘었고,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6.3%), '보통이다'(2.4%) 등의 대답은 적었다.

또한 계절학기를 등록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학생 중 62.1%는 계절학기 비용이 부담스러워 수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혀, 계절학기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창우(한국어문 3) 학생은 "현재 계절학기를 들을까 말까 고민 중이다. 재수강해야 할 과목이 몇 과목 있긴 하지만, 방학 때까 지 학교를 다니며 공부하는 것이 과

연 내게 도움이 될지 확신이 안산다."고 대답했다. 덧붙여 그는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되지만 한다면, 비용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동철(경영 3)학생 경우는 "학비를 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돈이 아깝다고 생각한다. 굳이 시간과 돈을 투자해가며 계절학기 까지 듣고 싶지는 않다."며 "현재 복수전공을 하고 있어 앞으로 들어야 할 학점이 많다. 계절학기를 듣지 않으면 4학년 때 힘이 들겠지만 그래도 그 편이 낫다."고 계절학기를 듣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전진욱(시각영상 3)학생은 "계절학기는 들을 수가 없다. 계절학기 비용이 부담돼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죄송하다."며 계절학기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냈다. **김하늘 기자** blue dreams@hansung.ac.kr

■ 타대학 엿보기 -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다양한 과목의 편성과 강의를 통한 사고력의 확장 도모

우리는 학교의 교양수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습득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교양과목은 필수, 일반교양과목 등으로 다양하게 펼쳐져 있지만 우리는 눈앞에 나열된 과목들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고민많은 청춘들에게, 교양과목들은 어떠한 답도 주지 못한 채 하나의 이론으로만 다가올 뿐이다. 이에 경희대에서는 '후마니타스칼리지'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올해 3월부터 발족되어 진행 중인 경희대만의 독특한 교양교육과정이다. 도정일(후마니타스칼리지)대학장은 이 과정에 대해 "체계적인 교양 교육과정이 대학교육에 자리잡지 못한 현실을 뒤집고자 하는 시도"라고 말한다. 교육목표는 '탁월한 개인, 책임 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 성원'을 양성하는 것이다. 그러

한 목표 아래, 후마니타스칼리지는 독서·토론·글쓰기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과정은 크게 중핵교과, 배분이수교과, 자유이수교과, 기초교과로 구성된다. ▲중핵교과는 인간의 가치탐색, 우리가 사는 세계 등을 통해 인간사회에 대한 기본이해를 탐구한다. 그리고 다양한 학문분야를 탐구하고 기초 교양을 쌓을 수 있는 ▲배분이수교과 과정도 있다. 이 과정은 생명·자연·우주, 의미·상징·공감, 사회·공동체·국가, 평화·비폭력·윤리, 역사·문화·소통, 논리·분석 등 총 7개의 주제영역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5개영역을 이수해야 한다. ▲자유이수교과는 수강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해 다양한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과로 다수의 외국어, 체육, 문화예술 관련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

다. ▲기초교과는 글쓰기, 영어, 시민교육으로 구성되는데 나를 위한 글쓰기, 세계를 위한 글쓰기 등의 과목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 볼 기회를 가진다. 시민교육과목은 사회봉사활동을 교육과정 내에 포함시켜, 실천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감을 함께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 경희대 신입생들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과정과 함께 총 35학점 이상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한다. 또한 중핵교과와 시민교육, 글쓰기 등의 핵심과목은 수강인원을 20명~40명으로 제한해 발표와 토론의 기회를 넓히고, 수업의 질을 높였다.

이밖에 학부생이 소속 학과에서 전공 외에도 교양과정의 과목들을 중점 수강하여 자유교양학(Liberal Studies) 자체를 공부할 수 있도록 자유교양학 복수전공제를 실시하고 있

다. 이 과정으로 일정이상량의 학점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복수전공제도에 따라 자유교양학 전공이 인정된다. 이러한 과목들의 수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사고를 넓히고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후마니타스칼리지의 교양교육의 최종 목표는 삶의 불확실성 앞에서 자기 생애를 이끌어 나갈 내적 견고성 함양이다. 이에 대해 김중범(후마니타스칼리지)행정계장은 "도정일 학생님이 예전부터 교양교육의 개편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 집중적으로 연구해 발족하게 되었다"며 "다양한 분야의 교양교육을 통해 넓은 시야와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취지가 좋기 때문에 학생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취재부**

대학만평

권현화(애니제출 4)



졸업앨범 환불신청 안내

- *1학기에 이미 졸업앨범을 촬영하신 학우분들은 앨범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대상 : 8학기 이상 등록하신분 (4학년 1,2학기 모두 등록하신 분)
- *일시 : 12월 7일(수) ~ 12월 16일(금) 오전 11시 ~ 오후 7시 (기간외에는 환불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우촌관 3층 무인발급기에서 4학년 1,2학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출력한 후, 학번과 연락처 기입 후 제출
- *장소 : 창의관 1층 졸업준비위원회 사무실
- *문의사항 : 졸업준비위원회 사무실 760-4105 / 졸업준비위원장 (010-4731-1933)



국내 제노포비아 확산 우려

(Xenophobia: 외국인 혐오증)

다문화 이해하려는 국민의 자발적인 수용 자세 요구돼

유럽의 관용정신이 무너졌다. 노르웨이 우퇴와아 섬 테러의 주범인 브레이비크는 반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극우주의자였다. 최근 러시아 젊은이들 사이에는 네오나치즘(Neozacism, 신나치주의)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폭동이 일어났고 프랑스에서는 극우주의자들이 득세한 지 오래다.

통계청의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은 국내 인구의 2.5%인 126만1천41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91만 명과 비교하면 4년 사이 무려 38.6%나 증가한 수치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사회의 문턱에 들어섰지만 일련에서는 반(反) 다문화주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8년 개설된 인터넷 카페 '다문화정책 반대' 카페의 회원 수는 7천 명에 달한다. 이 밖에도 반다문화화를 주장하는 인터넷 카페가 10여개 정도가 존재한다. 현재 반 다문화주의자들의 주요 무대는 온라인이지만 이들은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 19일 오후 보신각 앞에서는 반 다문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외국인 노동자 대책 범 국민연대'는 "불법체류자들이 저임금으로 노동시장을 잠식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사라지고 있다. 산업 구조조정이 불법체류자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며 "외국인 범죄가 7년 새 3배나 늘어났고 외국인 마약범죄는 2년 동안 9.5배나 폭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는 범법자다. 이들을 비호하는 세력은 외국인이라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무분별한 사대주의자들"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서구유럽을 비롯해 호주, 대만



▲ 지난 19일 보신각 앞에서 불법체류자 추방을 주장하는 반 다문화 집회가 열렸다.

등이 반이민정책으로 돌아섰다. 반 다문화는 세계적 추세인데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현재의 다문화 현상은 한민족 말살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재산(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사무국장은 "이주노동자들의 대부분은 한국인이 기피하는 소위 '3D'업종에 근무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우리나라 경제의 주춧돌이다."며 "이주노동자를 추방한다고 해서 청년실업난 문제가 해결되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외국인 범죄 건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반 다문화주의자들이 외국인 범죄의 주범으로 여기는 불법체류자는 30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줄었다. 오히려 주한미군의 범죄율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재산 사무국장은 "반 다문화주의자들이 외국인을 배척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외국인 범죄, 불법 이주노동자로 인한 실업자 양산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제노포비아

(Xenophobia, 외국인 혐오증)나 네오나치즘과 다를 바가 없다"고 설명한다. 이 사무국장은 "반 다문화주의자가 혐오하는 외국인은 동남아 이주노동자, 흑인, 무슬림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인에게는 무척 호의적이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인종차별주의는 1870년대 개항 이후 서구문명과 함께 유입된 아주 뿌리 깊은 사상이다. 한민족의 우수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자아 교육이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의 반 다문화주의는 유럽과 같이 외국인을 상대로 테러를 가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다문화 충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재산 사무국장은 갈등의 해결책으로 포용과 이해의 자세를 제시한다.

이 사무국장은 "이주노동자는 3년 이상 직장을 옮길 수 없다. 3개월 이상 휴직을 할 수도 없다. 이 행정적 절차를 거기면 곧바로 불법체류자가 되어 강제출국 당한다."며 "지칭하는 용어가 외국인 노동자에서 이주노동자로, 불법체류자에서 미등록 체류자로 바뀌어

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사실 산업역군이고, 강간·폭행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불법체류자는 소수이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 이미지를 띠고 있어 사람들이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의 80~90%는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돼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으로 시집을 오면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의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 반면 남편과 시댁 측은 며느리가 살던 나라의 문화를 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외국인의 한국인화를 유도하는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며 국민의 자발적인 다문화 수용을 촉구했다.

***네오나치즘: 나치 독일과 나치즘의 부활을 추구하는 사상을 말한다. 나치즘의 특징인 인종, 민족주의 사상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오지영 기자 guiyomee@hansung.ac.kr

그린 액티브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생활 속 유해물질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최근 가슴기 살균제의 공포가 한차례 휩쓸고 갔다. 지난 11월 9일 시민환경보건의센터 건수가 91개에 이르며 이중 28명은 사망, 나머지 환자들은 폐질환 등에 시달리고 있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생각해서 사용했던 가슴기 살균제가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다니 충격적이다.

생각해보면 언제부터가 생활 속에서 유해물질의 공포는 끊이지 않아왔다.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우리는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를 위험사회에 살고 있다. 인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를 살피자. 먼저 입는 것은 어떠한가?

화학섬유로 만든 옷은 화학약품에 젖어 있다. 누구나 편하게 입는 청바지만 보더라도 생산과정에서 방독면을 쓰고 작업할 정도로 유해한 화학약품 처리를 한다. 이렇게 생산된 염료와 금속장식은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발암물질 성분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된다. 더욱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수질오염은 '더러운 빨래'라는 오명을 안겨줄 정도이다.

그런가 하면 먹는 것은 어떠한가? 패스트푸드를 비롯한 가공식품의 식품첨가물과 환경호르몬, 유전자조작식품은 몸의 상태를 교란시키고 건강을 위협한다. 또한 생활공간도 마찬가지로 오래된 건물이나 건설자재에서는 석면이 나오고 새 집이나 새 가구에서는 폼페탈데히드와 같은 물질들이 나와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

이밖에도 수많은 생활용품 속에 화학물질이 도사리고 있다. 예컨대 물건을 살 때마다 주고받고, 누구나 지갑에 한 두 개쯤은 넣어 다니는 영수증에도 독성물질이 묻어 나올 정도다. 인간은 편리함과 욕망을 충족

하기 위해 만들어낸 수많은 발명품들 속에서 인간은 서서히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방식의 변화이다. 환경문제는 인간 생존의 문제이자 삶의 질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활 속 유해물질에 대해 알고 지혜로운 소비와 생활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인식 하에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생각하는 생활방식(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을 추구하는 로하스(LOHAS)족이 확산되고 있다. 웰빙(Well-being)이 개인적으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로하스는 개인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과 미래의 환경까지 생각하는 좀 더 사회적이고 배려적인 개념이다.

로하스 측은 화학제품보다는 천연제품을 선택하고,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생산과정을 거친 친환경제품을 선택하고,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구매하고,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제품에는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감수한다.

지속가능한 기법이나 농법으로 생산된 제품을 선호하며, 전체 사회를 생각하는 의식 있는 삶을 영위하고자 한다. 로하스 족이 많아질수록 기업들은 생산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할 수 있고, 정책입안자들도 환경에 민감한 정책과 제도를 고민하게 될 수 있다.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 생활 속 유해물질의 공포하기 위해 나와 지구를 함께 생각하는 로하스 족이 되어보자!

글 · 정미경 (새환경교육센터 연구실장)

FTA 찬반 학생기문

선점이 중요하다

2011년 대한민국은 소란스럽다. 세계 제1의 경제대국 미국과의 FTA 국회비준을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FTA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세계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신용사냥'이라는 반대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

미국과의 FTA 체결은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이 EU, 미국 등과 FTA를 맺으며 먼저 거대 시장을 선점하는 것에 대해 아시아의 경쟁국들은 자극을 받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다른 경쟁국보다 먼저 FTA를 마무리 지어 선점효과를 누려야 한다.

물론 FTA가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에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FTA로 피해를 보는 산업을 보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농어업 피해보전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보호 대책 등을 내놓았다. 이렇게 피해대책 등을 내놓았지만 단순한 보조금이나 단기적 연명술에 머물러서는 완전한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생산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장기적으로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돼야만 한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비준을 놓고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물론 누구의 말이 옳다고 말할 순 없다. 하지만, 야당 측에서 제시하는 독소조항 10가지 중 9가지는 전 정부의 합의내용에서 그대로 가져왔으며, 그 당시 보고서에도 한·미 FTA를 굉장히 잘된 협정이라 평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여·야가 뒤바뀐 전 정부시절에 자신들이 찬성했던 사항, 자신들이 반대했던 사항들에 대해 지금에 와서 잘 몰라 그런 것 이었다며 일관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당리당락이 아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FTA를 생각해야 한다.

FTA 체결 자체는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만약 불리한 조항들이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 될 것이다. 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미 FTA를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태성(무역 4)

급할수록 돌아가라

만약 FTA가 현행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이로 인한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FTA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기업 민영화는 공공요금의 개인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런 사례들은 FTA가 우리에게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여당에서는 단순히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지난 10월 12일 비준된 FTA관련 규정 중 100쪽이 넘는 시행규칙은 아직 번역도 되지 않고 있다.

FTA는 매우 불평등한 구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독소조항*들이 매우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불평등 독소조항에는 미국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가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ISD, 미국 특허권자가 국내에서 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인 'TRIPS'가 있다. 만약 이에 대한 대응

없이 FTA가 실행된다면 미국과 멕시코의 FTA협정으로 인해 멕시코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전례를 우리가 겪게 될 것이다.

물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단점은 수반될 수밖에 없지만 이번 FTA는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게 FTA가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면 단순히 빠르게 진행하기 보다는 천천히 협상을 진행해야한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단순히 국회의원만의 참여가 아닌 국민의 참여를 통한 정책 수립이 더욱더 효과적이며 정당성이 있다. 국민 참여를 유도하면서, 기본적으로는 FTA 체결에 수반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마련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FTA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독소조항: 법률이나 공식 문서 등에서 본래 의도하는 바를 교묘하게 제한하는 내용

이동훈(부동산 2)

낙산만평 이다영(의생활 1)

아무리 창의력 시대라고 해도 어쩔건 아닌 겁니다잉~?

개그는 개그대잉~잉

통자의 기준>

www.asan-nanum.org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만들면 된다

1940년대 초 금강산에서 직원들과 함께 한 아산 정주영

www.asan-nanum.org

아산나눔재단

青年不敗

주요사업	요 강	선발 방식	신청기간
정주영 창업 캠퍼스	• 창업 공간 제공과 교육 지원 • 멘토투자 연계 지원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3차 최종심사	수시접수
해의 봉사단원 파견	• 모집인원: 연 500명 (1기 100명) • 파견지역: 아프리카, 동남아, 인도, 중국(사후), 러시아(사베리아) • 파견기간: 1년 이내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3차 최종면접	12월 중 공고 예정
비영리 공익단체(NGO) 창업 아카데미	• 모집인원: 연 200명 (1기 50명) • 시기: 매 분기 1회 • 기간: 4박 5일 • 우수 수료생 해외 NGO 견학 파견	• 1차 서류심사 • 2차 최종면접	2011.11.14 ~ 11.30
창업경진대회	• EBS '브레인 박람회' 청년 창업 오디션 - 방영일시: 2011년 11월 18일 ~ 2012년 1월 6일(금) 19:50 ~ 20:30	• 최종 우승자에게 1억원의 창업자금 지원	
아산나눔재단 사무국 직원 공개채용	• 경력 및 신입직원 • 인턴직원 • 자원 봉사자	• 1차 서류심사 • 2차 최종면접	2011.11.14 ~ 11.30

※상세 내용은 www.asan-nanum.org



레스토랑 · 카페 · 떡볶이집, 이사까지 도와주는

꽃미남 마케팅

'훈남' 들이 건네는 달콤한 유혹들,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아유! 많이 먹어요! 머릿결이 너무 이쁘네!" 한 마디에 여학생들의 얼굴은 빨그레 붉어진다. tvN드라마 '꽃미남라면가게'의 극중 차치수(정일우 분)가 '단무지오빠'로 등극하며 가게를 찾은 여학생들에게 하는 대사다. 이 드라마는 미모와 개성을 갖춘 꽃미남들이 발랄한 여대생과 라면가게를 함께 운영하며 벌어지는 일을 다룬 로맨틱 코미디다.

드라마 뿐만이 아니다. 최근 꽃미남 · 훈남 마케팅은 카페, 시식아르바이트, 레스토랑, 떡볶이가게까지도 파고들었다. 이러한 가게들은 일반 가게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컨셉으로 여성 고객들의 발길을 모은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5tonstation'이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잘생긴 남성들을 고용해 여성 손님들을 '유혹'한다. 정비스 컨셉의 내분인테리어에, 빨간 작업복을 입고 머리에 두건을 쓴 꽃미남들이 손수 가게문을 열며 반겨주고, 나갈 때도 미소를 띄우며 배웅해 준다. "자! 손님! 하이파이브" 잘생긴 한 남 자직원인 테이블에 피자라 샐러드를 놓더니 "맛있게 드시라"는 의미로 손님들과 하이파이브를 한다.

이 가게는 지난 3월에 문을 열었다. 오현민(35) 사장은 "개점 당시는 여직원도 있었지만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컨셉을 수정, 완성하게 되었다"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할 때 외모를 고려하는 편이지만, 유머감각이 있고 일에 대한 열의가 보이면 채용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채용방식 때문인지 가게의 손님의 80~90%가 여성손님이다. 오 사장은 "꽃미남 컨셉이 많이 알려지다보니 입소문을 타고 오시는 손님들이 60%이고 블로그를 보고 오시는 분이 30%, 지나가다 들리시는 분이 10% 정도다"라고 설명했다.

각종 매체에서 '5tonstation'을 주목하면서 불어난 입소문과 마케팅을 펼친 결과로 인해 현재는 오픈 초창기보다 40배 이상 매출이 늘었다. 오 사장은 이에 대해 "직원들의 외모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피떡는 피자'와 '샐러드파스타' 등 신기한 메뉴와 직원들이

고객들과 장난을 치는 재미있는 분위기 때문에 손님들이 즐겨워하고, 이것이 매출이 오르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사업계에도 '꽃미남'들이 됐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꽃미남이사하우스'는 꽃미남으로 구성된 이사집센터다. '이저씨'가 아닌 '열집오빠'들이 일을 도와주러 온다. 깔끔한 정장차림으로 방문해 이사방법과 시간을 고객에게 설명한 후 옷을 갈아입고 이삿집을 나른다. 대규모 이사보다는 원룸, 소형 아파트에 사는 20대 초반 여성고객이나 20~30대 젊은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꽃미남 이사 서비스는 대학가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심철(34) 대표는 "학교 선배인 유준식(35) 대표와 함께 올달자 한 대를 구입해 학교를 다니면서 신촌주변 대학생을 타겟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직원들이 젊고 웃도 깔끔하게 입고 일을 해주는 것에 대해 고객들은 매우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때문에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고 사업취지를 설명했다.

이사업종이 3D업종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직원채용에도 고초를 겪었던 그는, 외모가 다소 꽃미남이 아닌 직원들도 미용 비용,

의류비용 등을 지원해주면서 '꽃미남'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꽃미남이사하우스의 독특한 영업노하우는 이뿐만이 아니다. 심철 대표는 "2인1조로 구성 시, 한명은 젊은 층에 어필할 수 있는 꽃미남직원으로, 다른 한명은 30대 이상의 여성에게 어필할 수 있는 명치가 큰 직원으로 팀을 구성한다"며 "우리 직원들은 집안의 가구와 분위기를 관찰해 고객의 관심사나 직업을 유추해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즐거운 이사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노하우를 설명했다.

꽃미남이사하우스는 'STP 이론'을 실천하고 있다.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시장 세분화(segmentation)와 집중공략 할 고객집단을 선정하는 표적시장선정(targeting), 상품을 소비자의 마음 속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포지셔닝(positioning)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만남의 기술」이미션 저, 무한에서는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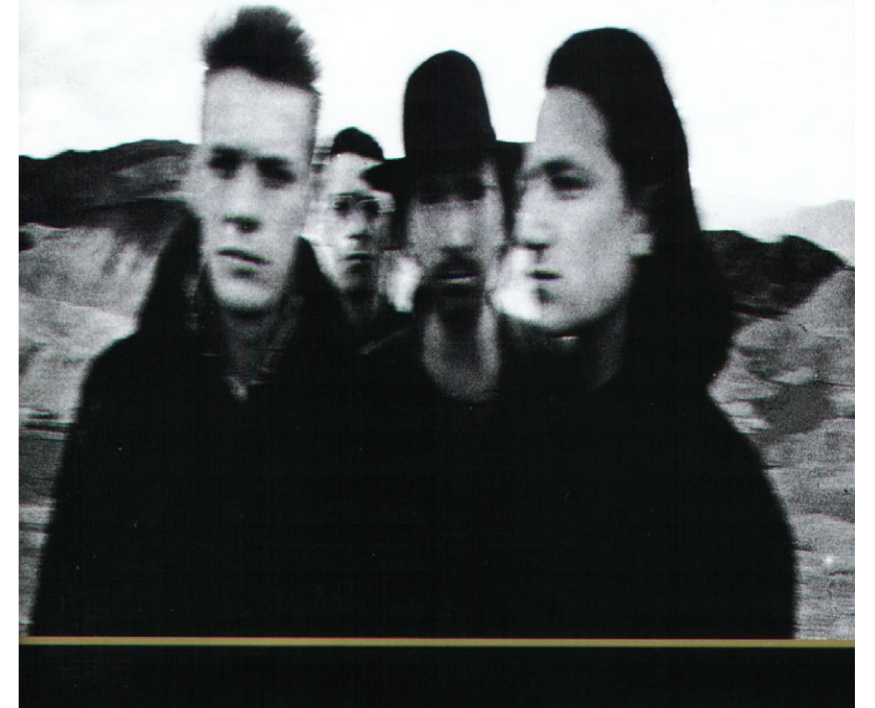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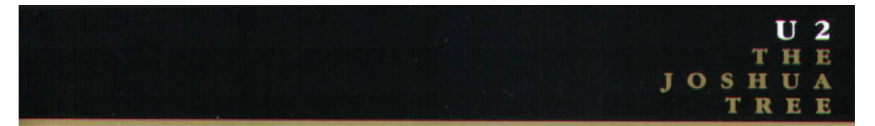
전에는 튼튼하고 오래가는 상품이 각광을 받았지만 이제 품질만 가지고는 더 이상 소비자를 유혹할 수 없다. 품질은 기본이고 요즘의 감성세대를 자극할만한 멋지고 근사한 디자인과 감성마케팅을 갖출 때 비로소 상품경쟁력을 가지게 된다"고 꽃미남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여성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남성 모델이, 남성 고객의 마음을 끄는 데는 여성 모델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른바 '소구 이성 마케팅' 전략에 따른 것이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며 거친 이미지 대신 부드럽고 자상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꽃미남스타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고 지위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른다.

〈문화부〉



Diamond Records



위기 속에 만들어진 명작

〈The Joshua Tree(여호수아 나무)〉

80년대는 팝 음악의 상업성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였다. 마이클 잭슨을 위시한 팝가수들이 밀리언셀러를 달성하면서 이런 현상은 점점 더 가속화 되었다. 60~70년대에 음악계를 지배했던, 대중들의 현실 인식의 내용을 담은 곡들은 더 이상 작곡되지 않았다.

60년대 반전과 평화를 외쳤던 록 음악도 현실에 대한 인식을 담기 보다는 강렬하고 자극적인 색채를 강화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물이 고이면 썩는 법. 80년대 음악계는 점점 상업적인 음악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고, 대중들 역시 이런 음악에 질리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앨범을 필요로 했다. 이런 음악계와 대중들의 기대를 훌륭하게 이행한 작품이 바로 U2의 〈The Joshua Tree(여호수아 나무)〉다.

이 앨범은 80년대에 인기를 끌었던 본 조비(Bon Jovi)의 〈Slippery When Wet(젖으면 미끄러워요)〉이나 건즈 앤 로지스(Guns N' Roses)의 〈Appetite For Destruction(파괴에의 욕망)〉처럼 사운드의 폭발성을 지닌 앨범이 아니었다. 하지만 앨범이 지닌 가치와 의미는 이런 폭발성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특히 앨범의 내용은 대중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충분했다. 사랑의 폭력성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는 'With or Without You(당신이 있든 없든)', 서구 사회의 정신적 빈곤을 다룬 'Where the Streets Have No Name(무명의 거리)', 탄광 파업의 비극을 다룬 'Red Hill Mining Town(붉은 언덕의 광산촌)' 등 대부분의 곡들이 사랑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나 사회 현실의 비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앨범은 전체적인 사운드와 곡의 구성

만으로도 충분히 '명반'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보노(Bono)의 보컬은 감정의 폭발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절제의 미학을 보여주었다. 보노는 이 앨범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88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보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보노의 보컬 뿐 아니라 에지(The Edge)의 기타사운드 역시 U2만이 가진 매력이었다. 특히 끝부분에서 울리는 청명한 현의 소리는 에지의 전매특허였다. U2는 이런 맑고 감동적인 기타에 무거운 배경사운드가 첨가해서 특의 부드럽고 무거운 매력에 극대화 했다.

각각의 곡들은 여기에 더불어 하나씩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앨범 최고의 명곡으로 꼽히는 'With or Without You'는 잔잔한 신시사이저 소리로 시작하다가 후반부에 감정의 격발을 일으키는 구조를 보여주면서 대중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Where the Streets Have No Name'의 경우에는 안개가 펼쳐지는 것 같은 기타 사운드로 신비감을 더했다.

이런 앨범의 성과에 대한 보상은 엄청난 것이었다. 앨범은 2천 6백만 장이나 팔렸고, 34주 동안 빌보드 앨범차트 10위권에 랭크되었다. 또한 그래미 시상식에서 마이클 잭슨의 〈Bad〉를 밀어내고 최우수 앨범상을 수상했다.

지금도 이 앨범은 80년대 팝 앨범들 중에서 가장 빛나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앨범의 성공이 지금까지 폭발 같은 것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절제의 미학에서 탄생했다는 점이다. 이런 U2의 창조적인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음식傳

분식계의 영원한 대부 '당면순대'



우리나라에는 오징어순대, 막창순대 등 많은 순대가 있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단연 당면순대다. 확장시절 학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 국물을 들린 당면순대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순대를 먹기 시작한 근원은 확실하지 않다. 다만 삼국시대부터 존재했던 순대가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삼국시대설과 고려시대 원나라에 의해 보급된 전루식당 '게데스*'가 순대로 발전했다는 몽고전래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먹는 당면순대는 순대소에 당면을 첨가한 것인데, 본래 순대 중에서도 돼지순대는 과거에 쉽게 구할 수 없었던 돼지의 내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고급 음식으로 취급 받았다. 이렇게 당면순대가 일상화 될 수 있었던 데는 1960년대 말부터 발전한 양돈업의 영향이 컸다.

60년대 이전까지는 서민들이 고기 자체를 접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 하지만 양돈업

이 발달하고 가축 수가 증가하면서 돼지고기와 소고기는 점차적으로 한국에서 대중화되었고, 1970년대 초반부터는 주요 대도시에 대형 도살장이 생기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도살장이 생기면서 순대의 주요 재료를 할 수 있는 돼지창자를 구하는 것이 매우 쉬워졌다. 그만큼 돼지창자의 가격도 그 전에 비해 싸졌고 곱창이나 순대가 서민적인 음식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특히 순대의 경우, 찹쌀을 이용해 찹지고 쫄깃한 맛을 살리는 한편 당면을 대량으로 사용해 양을 늘렸다.

이렇게 개발된 당면순대는 싼 가격과 많은 양으로 서민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그 결과 서울의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에는 당면순대를 판매하는 노점상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문제는 당면순대의 대중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순대의 위생 문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 70년대에는 다른 집에서 쓰고 남은 당면 찌꺼기들을 창자에 넣고 순대를 만

들어 팔던 노점상이 판매장지 처분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가장 파격적이었던 사건은 비닐을 이용해 순대를 제조한 사건이었다. 순대를 만드는 음식점이 많아지면서, 돼지 창자가 부족해져 자 나타난 범죄였다.

이 사건에 대한 언론의 공격이 심해지자 불법영업을 일삼던 대부분의 순대 공장들이 문을 닫았다. 현재 정부에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돼지 소창만을 사용해 순대를 만들게 하고 있다.

이런 사건들은 순대가 그만큼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음식이 되었다는 반증이었다. 최근에는 구제역 파동 등을 겪으면서 순대 시장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당면순대는 서민들의 허기진 배를 달래는 분식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게데스: 돼지 창자에 쌀과 야채를 섞어 넣고 밀리거나 냉동시킨 몽골의 전루식량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사진이야기



송도센트럴 파크의 야경입니다. 과거 제물포항을 중심으로 발달된 항구의 도시에서 혁신적인 스마트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호수가에 비치는 빌딩의 그림자와 어둠은 뉴욕의 센트럴 파크를 옮겨다 놓는 듯 이국적인 느낌을 풍깁니다. 미래의 도시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효숙(영어영문 4)

제26회

한성문학상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어찌면 밤새 머리는 돌아갔을지도 모르겠다. 협력사에 보내야 할 자료들과 오전 중으로 결재 받아야 할 서류를 놓여둔 폴더가 바탕화면에는 잘 정리되어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그러지 못했다. 엘리베이터는 15층을 지나쳐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사실, 3층이란 높이는 걸어 내려가는 편이 더 빨랐다. 특히나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 마음이 급하고,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집을 나섰다면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것은 이해 못할 행동이었다. 다행히 아무도 없는 복도였다. 나는 계단을 힘껏 쳐다보고는 다시 굳게 닫힌 엘리베이터 문으로 시선을 고정시켰다. 문이 열리면, 원래 계단으로 내려가려다 마침 타이밍이 맞아 엘리베이터를 탄 것처럼 연기를 해야 했다. 언제 부턴가, 이런 연기는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나는 누군가 나를 의식하기 전에 미리 상황을 머리에 그려 보고 적절한 대비책을 만들어 놓아야 직성이 풀렸다.

현관에 서서 차를 찾다가, 옆 단지에 주차한 것이 떠올랐다. 늦은 시간에 들어오면 자리는 항상 지하주차장 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런 날에는 차를 돌려 옆 단지로 향했다. 지하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조금 걷는 것이 여러모로 마음이 편했다. 나는 또, 누군가 왜 지하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생각하다가 휴대폰 진동을 느꼈다. 일전에 이용했던 대리운전 문자일거라 짐작했지만, 뜻밖에 누군가의 부고를 알리는 문자였다. 하긴, 대리운전 문자는 아침에 보내봐야 소용이 없지 않은가. 휴대폰에 찍힌 '김명환'이라는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 옆에 찍힌 '대행'이라는 단어는 더욱 낯설었다. 그 밑으로 글자가 계속 이어졌지만, 잘못 보낸 것이라 생각하고 삭제 버튼을 눌렀다. 재수 없게 아침부터, 죽음을 알리는 문자가 잘 못 왔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풀렸다.

회사 주차장 빈자리에 빈지듯 차를 주차하고 시계를 보았다. 시계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스스로 정해 놓은 출근 시간을 넘기자 갑자기 소변이 마려웠다. 협력사의 방음이 예정된 아침은 어느 때보다도 분주했다. 마주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눈으로 인사를 대신하고, 의자에 앉는 것과 동시에 컴퓨터 전원을 눌렀다. 부팅되는 동안 옆 자리에 앉은 팀장의 시시껄렁한 이야기가 입으로만 대답해 주었다. 주말에 본 공포영화가 무서워 간밤에 악몽을 꾸었다는데, 눈과 입을 모두 빌려줄 수는 없었다. 성의 없는 대답에도 끊임없이 말이 이어가던 팀장이 슬슬 민망해질 때쯤 내가 말했다.

"팀장님 영화를 왜 보세요?"

뭐 이런 질문을 하나니 표정으로 머뭇거리던 팀장이 말했다.

"뭐, 간접경험이고 대리만족이지……"

한참 떠들던 영화의 내용이 살인미야이카라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팀장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나는 팀장이 항상 영화에 대해서 늘어놓는 헛소리를 기억했기에, 단번에 입을 막아 버릴 수 있었다.

지난 몇 번의 경쟁 프레젠테이션은 나를 회사에 자리 잡게 해주었지만 동시에 5kg의 체중을 가져가고 반갑지 않은 신경과민을 선물해 주었다. 일이 늘어갈수록 증상도 깊어졌지만 그것에 대한 일시적인 방어를 할 뿐, 근본적인 해결에는 관심을 쏟을 수 없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를뿐더러 그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눈앞을 가로 막고 있었다. 특히나 지난 3개월의 시간은 작은 산소통 하나 메고, 고막이 터지고, 눈앞이 터져도 멈출 수 없는 잠수를 하는 기분이었다. 누군가 나에게 연결된 줄을 잡아당겨 수면 위로 끌어올려 주길 기대했지만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재촉했다. 다행인 것은 아직 산소통에 얼마일지 모를 산소가 남아있었다는 것뿐이었다.

점심시간은 끝났지만, 어떻게 점심시간까지 흘러갔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순진, 안보이던 사람들이 다시 사무실에 모여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뿐, 내가 점심을 곁들었다는 것을 팀장이 전해준 샌드위치를 받아 들고서야 깨달았다. 간단히 점심을 마치고, 마지막 점검을 했다. 회의실에 도착해보니 이미 협력사 사람들이 앉아있었다. 사실, 그들은 '협력사'라는 이름의 또 다른 부대였다. 협력사 사장의 사촌이 광고주로 있는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광고주가 하나 더 늘어버린 불편한 프로젝트였다. 만약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캠페인이라면 마무리된다면 가장 먼저 협력사의 이름이 올라갈 것이고, 그 반대라면 우리의 이름이 가장 먼저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은 처음부터 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회의장에 앉아있는, 협력사 대표의 비둘기 같은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순간적으로 짜증이 치밀었다. 회의장 곳곳에 웅기종기 모여 앉아 펜을 겨는 채, 한곳을 응시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뭔가 기억이 떠오르려고 꿈틀거리다가 주저앉았다. 나는, 앞으로 걸어 나가며 동시에 표정을 바로 잡아야 했다. 표정관리는 언제부터 들었던 말인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꽤나 유용한 것이었다. 눈앞에 거울은 없었지만 아마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라. 김수이 인사를 하고 노트북을 바라보았다. 프레젠테이션 전용 노트북에는 피란 배경화면이 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USB를 꽂았다. 참나였겠지만 노트북이 USB를 인식했다는 하얀 장이 뜨는 순간, 마치 무언가 저 멀리서부터 밀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아니, 실제로 밀려왔다. 하얗게 밀려온 바다는 해변가에 포말을 남기고 다시 물러갔다. 파도가 치고, 물러가고, 치고, 물러가고……. 똑같은 반복이었지만 파도가 물러갈 때마다 눈을 크게 뜨고 해안을 노려봤다.

"에이 씨발, 왜 강릉으로 들어오고 지랄이야. 서해가 들어오기 더 편한 거 아니야?"

"그것도들 실수해서 밀려 온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려고 있어야 하는 건지, 짜증나서 미치겠습니까?"

아직 그들의 대화에 귀찮한 처지가 아니었던 나는 그저, 묵묵히 옆

드린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9월의 어느 날, 강릉 앞 바다로 북한의 잠수함이 떠밀려왔고, 몇 명인지 모를 무장공비들은 산으로 기어올라 민통선을 향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론상으로는 김복을 지키다가 지나가는 북한군을 쏘 죽이거나 생포하면 되는 간단한 작전이었지만 그들 한 명이 맨 손으로 우리를 10명을 간단히 제압할 수 있다는 소문과 짓가락이라도 손에 쥐면 칼보다 위험하다는 소문은 그리 간단하게 들리지 않았다. 대개 그런 소문은 부풀려지기 마련이라면서도 행여나 우리가 있는 곳으로는 지나가지 않길 바라고 있었다. 특별히 노을이 없는 동해안의 어둠은 예고가 없었다. 불현듯, 보이는 것이 없어지는 그런 밤이었다. 그래서 더욱 고요하고 불안했다. 바다 옆으로 펼쳐진 국도는 집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아득하게만 느껴졌고 한 숨의 깊은 잠이 그리웠다.

"김 대리, 뭐해? 이봐, 웬민 씨!"

대리라는 직책보다도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음에 화들짝 정신이 들었다. 후에 들은 바로는 처음에는 컴퓨터에 문제가 생긴 줄로 알았다



한성문학상 삽화 : 한이름(회화 4)

고 한다. 그리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매년 내가 준비하던 프레젠테이션에 약간의 이벤트가 있었기에 그것의 하나인줄로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눈을 감아버린 내가 미동도 하지 않자, 이 팀장이 다가와 나를 흔들었고 마치 잠들었던 사람처럼 나는 일어났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자 머릿속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이미 많은 사람들의 눈빛에서 프로젝트와는 상관없는 의문이 떠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핑계거리들은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호흡을 가다듬고 침착하려 애썼지만, 파도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내내, 깨닫게 모든 것을 지워버렸다. 결국 나는 지난 3개월의 노력이 휩쓸려 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모두의 기대를 받은 프레젠테이션이 예상보다 허무하게 끝나버려서 협력사를 의식한 팀장이 앞으로 나와 부가적인 설명을 더했고, 다시 자리로 들어가 앉을 자신이 없어진 나는 밖으로 나왔다. 무심코 들여다본 휴대폰에는 문자 메시지가 왔음을 알리는 창이 떠 있었다. 아침에 받은 메시지가 한 번 더 왔다는 것을 확인하자, 순간적으로 욕이 튀어나왔다. 어느새 다가온 팀장이 그것을 들었는지 말을 걸었다.

"너무 신경쓰다보면 오히려 그럴 수가 있어. 신경과민으로 약도 먹는다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좀 쉬는 게 어때?"

다시 나도 모르게 욕을 내뱉을 뻔 했다. 이제 와서 빠지라는 것은 지난 몇 달간의 수고를 고스란히 자신에게 바치라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았다.

"일단 병원 좀 다녀올게요. 먼저 들어가시죠."

하지만 다시 책상에 앉아 다른 일을 처리할 자신도 없었다. 아침부터 꼬여버린 재수 없는 날이라 생각하고 마침 약도 거의 떨어져 가기에 병원에 잠시 들렀다가 올 생각이었다. 회사 근처 병원 의사는 나를 단지 직장인 스트레스로 고통 받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늘 비슷한 말에 같은 처방이 전부였다.

"일 좀 쉬엄쉬엄 하세요. 이쪽은 약간 잘 먹는다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다못해 나는 정신과 의사에게도 완벽한 핑계를 준비해갔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이곳을 찾는 사람이 환자의 대부분일거라는 예상은 정확했다. 의사는 나를 그저 그런 환자로 분류했고, 그 뒤로 특별할 것 없는 정신과 방명이 계속됐다. 하지만 오늘 겪은 일은, 그저 그런 환자가 겪을 만한 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좋을지 망설이다가, 지쳐버렸다. 지금껏 들려던 핑계와는 다른 진짜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분류

될 나의 처지도 걱정스러웠다. 아직은 견뎌낼 수 있다고 속삭이며 병원을 나왔다.

일 년의 마지막 달이 주는 묘한 설렘은 도시 곳곳에 가득 차 있었다. 곧 크리스마스였다. 아무것도 받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편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한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는 듯 했다. 차를 한 잔 하려다가 커피전문점 안에 가득한 사람들을 보고 그만두었다. 병원을 나와서 특별히 의식하지 않았지만, 어느새 회사 앞 횡단보도에 서있었다. 회사 정문은 어서 들어오라는 듯 활짝 열려있었고 그 모습이 한결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길을 건너려고 어설픈게 줄을 만든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나는 맨 뒤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아, 3소대장! 너 뭐하고 있었어. 이 개새끼야! 소대장이라는 게 뭐하고 자빠져서 공비 새끼들 지나가는 것도 몰랐냐고! 대답 안해?"

같은 고향 출신이라며 곧 잘 어울리던 중대장과 소대장 모두의 얼굴에 핏기가 없었다. 중대장은 한참 동안 칼바람을 맞으며 힘껏 소리

막으며 상황보고를 받는 중대장의 얼굴에서 긴장감이 흘러내렸다. 각 분대 별로 지하, 1층, 2층과 옥상을 수색하기로 하고 우리는 지하를 향했다. 놀라서 방아쇠를 당길 경우를 대비해서 방아쇠에서 손가락을 빼고,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지만 뺨이 자꾸 흘러내려 눈을 가렸다. 군대에서 실제로 사람을 향해 총을 쏘아하는 상황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정말 무장공비가 눈앞에 나타난다면 살기 위해 방아쇠를 당겨야 하겠지만 진짜 당길 수 있을지 자신이 서질 않았다.

옥상이 최초 목격된 곳이고, 현재 무장공비가 숨어 있는 곳으로 예상되는 곳이었지만 지하라는 공간이 주는 부담감은 좀체 줄어들지 않았다. 조그마한 폐교에 지하로 향하는 계단은 총 네 곳이었다. 건물 안에서 내려가는 계단이 양 끝과 중앙을 포함해 세 곳이고, 외부에서 연결된 지하 체육 창고로 들어가는 계단이 하나 있었다. 다행히 나와 고찰은 어느 곳으로도 내려가려는 명령을 받지 못했다. 그저 외부 계단 앞에서 튀어나오는 사람이 우리 쪽 사람이 아닐 경우 쓰라는 명령만을 받았다. 계대를 올라 앞둔 군인의 죽음을 입을 떠난 지 얼마 안 되는 군인의 죽음을 얼마가 무엇이 얼마나 더 안타까운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책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바가 있었던 것 같다. 겨우 두 달이 빠른 고참이 내 앞에 서서 나를 안심시켰다.

우선, 내가 누워 있다는 것에 놀랐고 내 손을 꼭 잡은 어머니의 손이 보여서 더 놀랐다. 몸은 말을 듣지 않았고,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았다.

"아, 발다른 이상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디만,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던 것과 과로의 증세가 보이는 거로 봐서 당분간 휴식이 필요할 듯합니다. 넘어지면서 비대에 부딪힌 머리의 상처도 치료해야하고, 손목도 다친 것 같은데 천천히 살펴봐도 좋죠."

신기하게도 의사가 말하는 순서대로 통증이 강하게 느껴졌다. 의사가 과로라는 말만하고 나갔다면 머리와 팔뚝의 통증은 느끼지 못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다가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괜찮나? 웬민아, 말할 수 있겠어? 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있다고 연락 와서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된 거 며칠 푹 쉬고 가죠. 너무, 걱정 마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이 상했다. 몸이 아픈 것을 다 합쳐도 모자랄 만큼 속이 아팠다. 이제 나는 프로젝트에서 제외될 것이다. 회사는 얼마간의 휴식을 허락하겠지만 적응기간을 준다거나 바로 큰 기회를 주거나 하는 배려와 관용을 베풀지는 않을 것이다. 줄이 끊어진 채, 기를 알 수 없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정말 죽음에 가까워지면 누군가는 끌어 당겨줄 그 줄이 끊어진 기분. 눈은 깜빡이는데 어둠은 가시지 않았다.

상황을 정리해보니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던 중 쓰러진 것 같았다. 회의실에서 순간적으로 환영을 봤다면, 이번에는 의식을 잃은 것 같았다. 의식을 잃어버린 것과 환영이 시작된 것이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어쨌든 지금 머릿속에서는 군데군데 땀집하듯 막아 놓은 뚝이 터져 흐르고 있었다. 실제로 무언가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느낌에 창문을 바라봤지만 뿌옇게 내려앉은 서리가 허락하지 않았다.

단지 하루를 더 쉬고 나온 회사에서, 나는 내가 맡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제외된다는 말을 들었다. 배려라는 말도 징계라는 말도 그럴듯해 보였다. 우치하게 그만 둔다는 말은 나에게도 그들에게도 필요치 않았다. 회사에 출근해서 처음으로, 자리에 앉음과 동시에 컴퓨터 전원을 누르지 않았다. 우습게도 새까만 모니터는 내 모습을 비쳐보는 것을 허락했다.

"김 대리, 그대도 회사에서 김 대리 실력 알고 있잖아. 그래서 잠시 프로젝트에서만 나와 있으라고 한 거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 2팀 회의부터 참석해봐."

팀장이 그 뒤에두고 뭐라고 말을 이어갔지만 소리만 들릴 뿐, 말로 들리지 않았다. 계속해서 꺼진 모니터를 보며 대답도 하지 않는 나에게 화가 났는지,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김 대리! 정말 이럴 거야? 나는 그대도 김 대리 생각해서 위대하 말 잘하고, 입장 생각해 줬는데 사람이 뭐 이래? 나가라는 것도 아니잖아!"

분명 나가라는 말은 아니었다. 나가라고 해도 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이곳을 떠나라는 말은 분명했다.

"곧 집에 갈 날들도 전역 시켜달라고 난리치는데, 아직 군 생활 많이 남은 네가 계속 이곳에 남아서 이런 저런 생각하는 거 중대장으로 서 걱정스럽다."

"그럼……. 저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전방에서 철수하는 건 오늘 당장 가능하고, 아예 서울 쪽으로 가서 제대하는 것도 가능한 거 같다. 나쁘게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다들 꿈에 그리는 제대야임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너도 나랑 얼굴 마주하는 거 불편하지 않잖나?"

나는 그렇게 모니터에서 눈을 돌리지 못한 채, 두 사람에게 나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 수 없는 소리를 양쪽으로 듣고 있었다. 참다못한 팀장이 어깨에 손을 올리자,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중대장 명찰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 때 바로 알아보지 못한 건, 아직 나이로 치면 한창인 그가 허무한 부고 메시지로 날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그가 좀 더 오래 고고 높게 올라갈 사람이라 생각했다. 3월장이려면 아마 오늘이 마지막 날일 것이다. 이름과 직책 밑으로 이어진 글자들을 떠올리려고 노력하면서 자연스럽게 회사를 나왔다. 회사를 나서서 마지막 모습은 중대장, 아니 문자 메시지의 그 이름 덕분에 생각보다 초라하지 않았다.

1 소설부문 당선작 1



‘아, 강릉……’

분명 나는 문자 메시지에서 이름과 직책 밑으로는 읽은 기억이 없었지만, 의지와 상관없이 찍혀버린 기억은 강릉이라는 지명을 의식의 수면에 떠올려 주었다. 군 장교들이 풀고 돌아 자신이 전에 근무했던 곳으로 가는 일은 비밀비재했다.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죽을 수도 있었다. 모든 게 크게 놀랄 일은 아니었지만 하필 강릉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곳에 언젠가 한 번 가보았다고 생각한지 꽤 오래됐지만 정작 가아할 이유는 또 없었다. 때문에 이렇게 찾아온 기회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어쨌든 강릉은 나에게 휴가철을 보낼 만한 곳도, 남들처럼 시원섭섭한 군대의 추억이 있던 곳도 아니었다. 굳이 말하자면, 독과도 같은 곳이었다. 기억을 막아버린 독, 그런 데 알맞게도 당시 중대장이었던 김명환의 장례식 장소가 그곳이었다. 터미널을 향하는 길과 집으로 향하는 길의 가운데서, 집에 들어가 이 런저런 설명을 할 생각을 하니 불편함이 솟구쳤다.

터미널에 도착해서 강릉행 버스에 오르기까지는 휴가를 복귀하던 시절로 돌아간 듯 군데터기 없이 움직였다. 무언가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터미널에서 파는 음식 중에 구미가 당길만한 것은 없었다. 캔커피 두정을 따면서 우등버스를 택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버스 안에 사람은 10명이 넘지 않았고 그마저도 모두 떨어져 앉아 자신만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서울을 빠져나가지 풍경은 어느새 산으로 들판으로 바뀌어 있었다. 앞에 앉은 사람이 기지개라도 펴는 듯, 의자 위로 팔이 올라왔다. 웬지 모를 피곤함에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본 그 팔이 누군가의 팔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

계단을 보고 있던 나와 고침은 옥상이 아닌 지하로부터 들려오는 총소리에 얼어붙었다. 내가 움직이지 않자, 고침이 팔을 들어 올려 나를 진정시켰다. 나는 그 팔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영혼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먼저 정신을 차린 고침이 천천히 손짓으로 유도했다. 우리는 조금씩 그 계단으로 향했다. 활짝 열린 철문은 흰빛 밑에도 달릴 것 같지 않았다. 총소리가 울리는 도중에는 감히 밑으로 내려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침묵이 흐르자 미처버린 것 같았다. 잠시 숨을 고른 고침이 먼저 계단 입구에 들어섰고, 나는 조심스레 그 뒤를 따랐다. 반층을 내려가서 빛이 완전히 사라진 남은 반 층 계단을 향해 때었다. 어둠속에서 불조각이 밝혀 부스리지는 소리가 들렸다. 올라가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은 입기에서 나오지 못했다. 내가 빛줄기가 끝나는 곳에서 망설이는 동안 고침은 조심스레 완전한 어둠으로 몸을 숨겨 들어갔다.

나는, 버스 창가에 머리를 기댄 채, 눈으로는 과거를 보고 귀로는 현실을 듣고 있었다. 그 어중간한 경계에서, 때마침 크게 들려온 경적 소리 덕에 간신히 몸을 빼낼 수 있었다. 차라리 차를 몰고 내려왔더라면 이런 환영에 시달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운전 도중에 헛것을 보았더라면 살아서 강릉에 도착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편의 영화를 본 듯, 의외로 강릉은 멀지 않았다. 무의적으로 계속해서 지워버린 문자 메시지 때문에 강릉에 도착하자마자 몇 군데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

“7번 국도 쪽으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와 몇 마디 나뉘보니, 혼란 중 차량 전복사고로 연대장이 죽은 사건은 꽤 유명한 사건이었다. 장례는 부대장(團)으로 치러지고 있었고, 나는 강릉과는 별개로 다시 가보리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부대로 향하고 있었다. 강릉 시내를 벗어나자, 다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7번 국도는 언제나처럼 아름다웠다. 기분이 썩 좋을 리 없는 휴가 복귀 때에도, 이곳을 지날 때만큼은 환영받는 기분이었다. 이름답다는 말로는 턱없이 부족한 많은 것들이 택시 창가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곳에서 군 생활을 한 사람들이 민회객들에게 가장 자랑 하고 싶은 곳이자,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7번 국도면. 그렇게 장박을 바라보던 나는 문득, 그곳에 붙어서 총을 겨누던 시절이 떠올라 몸서리쳤다.

어두워져 가는 장례식장 앞에는 그의 사진과 그가 군인으로써 이룬 업적이 적혀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빛줄에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투입, 당시 지휘하던 중대가 무장공비 사살’은 내 눈에 확실하게 들어왔다. 여기까지는 단숨에 왔지만 안으로 들어가기가 영 망설여졌

다. 더욱이 사진의 눈을 보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발목에 감겨오기 시작했다.

“어? 용민아, 김용민! 아이 자식 진짜 오랜만에네.”

고개를 숙이고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이미 그들은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더 이상 피한다면 자연스럽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화에서는 그 시절에 머물던 사람들이 현실에서는 사투 달란치 모습이 었다.

“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소식 듣고 일 때문에 이제야 내려왔네요. 이렇게 가실 분이 아닌데 사교리니 안타깝습니다.”

최소한 나는, 강릉에 내려온 이유가 중대장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었다. 스스로에게도 그들에게도.

“그래, 우리야 강릉 사니까 왔지만 서울에서까지 오다니. 역시 용민이는 중대장님하고 특별하구만.”

“그때는 최고의 중대원하고 최고의 지휘관이라고 다들 난리였는데 말이야.”

“낫 뜨거운 맘에 마땅한 대답을 찾지 못한 나는 다시 한 번 중대장의 사진을 바라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는 또 다시, 잔뜩 힘이 들어간 눈으로 나에게 말을 했다. “소대장이 왜 거기에 있었는지부터 의심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다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여기서 굳이 파고 들어가 봤자 제 살 깎아 먹는다는 소리 들을 것 같고 하나가 넘어 가는 거야. 어디 가서든지 말 함부로 하고 다니지 말고.”

“예…….”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뭐 했는지, 나한테만 말 할 생각 하나?”
“아무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그 기억 말아야, 영원히 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나가봐.”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피곤해서 그런지 정신이 없어 보이네.”
“가서 한 잔하면서, 애기도 좀 하고 하자고.”
누군가 내 팔을 잡아끄는 힘을 느끼면서 중대장의 눈빛에서 벗어난 나는, 사진의 시선이 닿는 곳에 머물기가 거부했다. 가져오지도 않은 차 핑계를 대며 밖으로 나가는 나를, 그들은 애가게 불렀지만 나조차 발걸음을 막을 수 없었다. 정신을 차리자, 부대가 보이지 않는 꽤 먼 곳까지 와 있었다. 그럼에도 쫓겨 심장박동은 줄어들지 않았다. 귓가에 울리는 심장박동 소리 때문에 다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그대로 길가에 주저앉은 나는, 손에 잡히는 돌 부스리기를 만지작거리다가 포장되지 않은 도로임을 깨달았다. 잠시 숨을 고르고 손바닥에 붉은 모래를 털어냈다. 이제 어디로 가야할지 정해야했다. 시내에서 잡자리를 구하려면 다시 부대 앞을 지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몸을 일으켜 세웠다. 하지만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바람에 깜짝 놀라,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김용민, 빨리 안 일어나? 정신 바짝 차리고 코로 숨 쉬어. 뛰면서 아무 생각 하지 말고 알겠어? 선임들 다 정신없이 뛰는데, 막내 새끼가 자빠지고 잘하는 짓이야.”

대답을 하려고 했지만 입에서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 나왔다. 넘어지고 일어나서 다시 달리는데 까지 채 3초가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소대장은 나를 핑계로 모두를 향해 쏘아붙였다. 묘한 압박감이 무리지어 달리는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싸이렌 소리를 듣고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한 우리는 어느새 도로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넘어지면서 짙은 손바닥에 작은 돌 조각이 박혀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것을 이유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산길을 지나 바다가 잠시 보이고 다시 깊은 숲이 이어질 때까지 온 힘을 다해 달려야했다.

폐교는 더욱 폐교가 되어 있었다. 환한 대낮에 찾아가라고 해도 자신 없을 것 같은 이곳에 나는 도착해 있었다. 어쩌면 한 시도 잊지 않았던 기억일지 몰랐다. 이제 환영은 현실과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었다는 듯, 내 앞을 가로질러 뛰어가는 이등병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손바닥을 연신 군복 바지에 문질러내고 있었다. 15년 전 기억은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린 듯, 차근차근 재생되었다. 어느새 지하로 이어지는 입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그들은 소리가 멈추길 기다렸다가 천천히 계단으로 내려갔다. 그걸 지켜보던 나 역시 뒤 따라 내려갔다. 평소 공표영화 따위에 겁먹는 이들을 비웃었지만, 홀로 산 속에 있는 폐교의 지하 계단을 밟을 만큼 무감각한 사람도 아니었다. 하지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보지 않고 돌아간다면, 또 다시 언젠가 이곳을 찾는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지하로 내려가라고 명령했다.

빛줄기가 끝난던 그곳에 나는 서 있었다. 고침이 들어간 그 길을 뒤 따라 들어가야 했지만 나는 그 어둠이 두려웠다. 나중에 이 상황이 끝나면 어둠속에서 길을 잃었다는 핑계가 과연 통할지 생각하면서 멈춰 서 있었다. 바로 앞으로 공비가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져갈 수록 총을 겨는 손에는 힘이 들어갔지만 다리에는 힘이 빠지고 있었다. 길지 않은 그 시간 동안 땀이 무릎을 지나 흐르고 있다는 느낌을 여러 번 받았다. 멈춰버린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혼자 가버린 고침이 원망스럽기도 했다.

“탕, 탕, 탕.”
몇 발의 총성은 간신히 지탱해오던 두 다리의 힘을 완전히 빼앗아 버렸다. 그 뒤에도 몇 발의 총성이 더 들렸고 고침의 소리가 분명한 비명도 들렸다. 그럼에도 나는 그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이 하지 않았다. 우리는 내려가서 수색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다. 그것과 고침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다가 저렇게 된 거라는 두 가지 핑계를 떠올리며 눈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불현듯 어둠이 나를 집어 삼킨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나는 움직이지 않았고 어둠이 먼저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 어둠이 내 팔을 움켜쥐었을 때, 핑계를 만들지도 못한 채 방아쇠를 당겨버렸다.

어느새 달려온 소대장은 이등병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어렵사리 튀어나오는 말을 상황과 연결시켰다. 반쯤 미쳐버린 이등병, 그 바로 앞에 쓰러져 있는 고침의 시체와 계단 밑에 쓰러져 있는 공비의 시체, 그리고 그들이 보지 못하는 나. 모두는 소대장이 하는 말을 듣고 있었다. 고침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 모두 사는 방법은 이것 밖에 없다며 자신을 믿으라고 큰소리치던 그는 이윽고 자신의 총과 고침의 총으로 죽음을 연출하기 시작했다. 그는 공비가 들고 있던 칼로 자신의 옆구리에 상처를 내면서도 말을 멈추지 않았다. 소대장이 신음과 피를 흘리며 내뱉는 말을, 넋을 놓아버린 이등병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 손과 입을 놀리던 소대장은 갑자기, 이등병을 감싸고 고개를 돌려 내 눈을 바라봤다.

“이제 밝혀지면 다 죽는 거야. 알겠어?”
소대장의 섬뜩한 눈빛을 끝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의 요란한 소리로 멈춰버렸다. 나는 다시 그곳에 혼자 있었다. 두려움도 사라졌다. 다만, 이제와 새삼스레 역겨웠다. 부하의 죽음을 기회로 만든 소대장. 하지만 가장 역겨운 것은 소대장의 이야기를 뚝뚝 새겨들는 나의 모습이었다. 그 이후로 아마도 나는 수많은 핑계를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언제든 누가 물어봐도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핑계가 없다면 그것은 차라리 일어나지 않은 일이 되어야 한다고.

마지막 계단을 오르며 갑자기 7번 국도변의 풍경이 보고 싶었다.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길을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폐교를 벗어나 산

길을 다시 오르며 머릿속에 복잡하게 뒤엉키던 생각들은 단 한 가지 그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좁혀졌다. 모래사장에 찍힌 수많은 발자국이 몇 번의 파도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습과 하늘과 맞닿은 저 먼 곳에서부터 불현듯 찾아오는 어둠이 그리웠다. 이미 주변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곳에 누워 집을 그리워 할 때, 찾아와 나를 감싸주던 그 어둠이 그리웠다. 천천히 걸던 나는 어느덧 숨이 턱까지 차올 정도로 달리고 있었다. 정장에 구두를 신은 채, 야산을 오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넘어지고 일어나는 행동의 반복으로 그곳에 도착했다. 땀과 피, 흙과 모래에 범벅이 된 나의 모습은 흙사 그 당시의 나와 같았다. 잡힌 허리를 피며, 무심코 바라본 절벽 아래 바다는 해안등을 따라 굽어치듯 움직이고 있었다. 차오른 숨이 좀체 가라앉지 않아 그대로 드러누워 버렸다. 내 눈으로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세삼, 나만 살아있다는 사실이 파도처럼 다가왔다가 물러갔다. 올려다본 하늘에 별이 하나 있을 만도 한데 어렵게도 눈을 감는 것과 뜯 것에 차이가 없었다. 눈을 감어도 떠 봐도 보이는 건 없는데, 갑자기 뿌옇게 흐려졌다.

어느새 달려온 소대장은 이등병에게 다가왔다. 이등병은 총을 겨는 채, 울고 있었다.

“용민아, 총 내려놓고 진정해. 나 소대장이야! 입마! 정신 차리고 총 내려 어서!”
“개소리 하지만 죽어 버릴 거야.”
“용민아!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봐! 공비 잡으려다가 그런 거면 다 괜찮아입마.”
“용서 받을 수 없는 거 다 알아. 내가 죽었어, 눈감고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내가 죽었다고. 당신이라고 막아줄 수 없는 거 다 알아.”
“일단, 총 내려놓고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시끄러워, 다 내가 해결할거야.”
“김용민!”
“닥치라고!”

‘탕.’

울고 있었다. 마지막 환영에서 나는 분명 울고 있었다. 누군가 대신이 일들을 처리해주길 바라며, 그들의 시체를 옮기고 총을 빼앗아 여기 저기 흔적을 만들며, 칼을 집어 들어 내 몸에 상처를 만들며, 나는 울고 있었다. 처음 보는 얼굴은 단 한명, 그럼 내가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다. 연신 흘러내리는 땀은, 온 몸에서 눈물이 나오는듯한 작각을 불러 일으켰다.

소매로 얼굴을 훑고자 나자, 검붉은 빛이 눈에 들어왔다. 눈가에 피가 묻어 붉은 빛이 보이는 것은 아니리라.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비벼 보아도 주위는 환하게 밝혀져 오고 있었다. 아니, 밝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 분명, 나는 강릉의 노을을 보고 있었다. 지금껏 아무도 본적 없는, 강릉 언덕따로 해가 지는 모습을 나 혼자만 살아 보고 있었다. 문득, 서울로 돌아가 둘러쌀 핑계치고 강릉의 석양은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설부문 심사평

서사의 긴장감과 이야기성이 돋보인 작품

이정숙(한국어문학부)교수

총 14편의 작품 가운데 자연스럽게 읽히면서 문장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작품들이 있는가 하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기에는 아직 문장 연습을 더해야 할 작품들도 있었다. 화가들이 전시회를 통해서 자기 작품의 장단점을 확연하게 알게 되듯 소설 공모를 통해 자신의 문장 실력에 대해 객관적인 점검을 받게 되는 것은 앞으로의 방향 설정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예심을 거쳐 온 작품 가운데 <강릉 환영곡>과 <수집가> 두 편의 작품을 두고 여러 차례 읽어보아 했다. 두 작품 모두 문장력 뿐 아니라 소설에 대한 인묵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작품들이다. <수집가>는 서사성과 주제 의식도 갖추었고 지하철 폐휴지 수집가라는 비교적 현 시대에 맞는 소재를 통해 무지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애환을 일정하게 무거운 톤으로 유지하면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수집가'가 작품에서

노인을 지칭하지 않는 제3의 인물로 나오는데 노인 역시 폐휴지 수집가인 만큼 '제물'이 비교적 단순하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구성면에서도 뚜렷한 갈등의 관계가 보이지 않는 점도 아쉽다. 그에 비해 <강릉 환영가>는 과거 군대 시절 강릉 언덕바지에 침투했던 공비 사건과 현재 직장 생활의 치열한 경쟁과 고단함을 교차 반복시켜 서사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 모두 실제로 적과 대치하는 전장터와 숲의 전장터라는 공통점과 함께 공비 사건에서 만들어진 트라우마가 현재를 지배하고 있다는 설정도 무난하다. 물론 그 연계성을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켰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소설의 서사구조와 이야기성에 비중을 두면서 <강릉환영가>를 당선작으로 택했다.

그 외에 작품들을 보면, <툼>은 과학과 피하의 어두운 심리를 긴장감 있게 파헤쳤으나 인물의 리얼리티나 시점 이동이 부자연스러웠고, 저승과 이승의 인연에 대한 메시지를 민주화 운동과 함께 떠나간 <713046년 저승사자의 변>은 대화 중심의 스토리 전개에 무리가 있으며, <하이로>는 설정이 재미있으나 앞부분에 정황 설명이 많아 사건의 전개도 함께 그려져야 했다. 주제의식이 진지한 작품(<그녀의 창>), 입담과 입심이 돋보이는 작품(<어느 산타클로스의 독백>), 사회의식을 보여주거나(<조각들>) 개와 노인의 생활을 통해 현대사회의 소외를 다룬 작품(<꽃개>)들이 있으나, 대체로 문장 표현력에서 아쉬움이 크다.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의 캠퍼스 생활이 배경이 되는 작품들(<미지근한 생각>, <봄비>) 등은 흔한 소재에 갈등구조나 서사성이 상투적으로 흐르기 쉬운 만큼 새로운 인상을 주지 못한다. 아울러 지나치게 자극적인 소재(<크리스마스 트리>)<선택>나 서사성의 부재 같은 경우는 진지하게 많이 읽고 써봄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을 점언한다.

소설부문 당선소감

행복했던 보금자리를 떠나며



김대건(한국어문 4)

3학년 답사지가 강릉으로 결정됐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군 생활을 강릉에서 했던 선배들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 이야기들은 답사 기간 동안 이야기로 만들어졌

고, 강릉의 아름다운 풍경이 무척하게 아름답지 못한 글이 써졌다. 인간이 다친 상황과 그 상황에 따른 의식의 문제와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다. 결과적으로 병적인 강박증을 표현하는데 급급했지만 사실, 우리의 가까운 곳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자 했다.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되어지는 상황에서 '실수'라는 이름으로 덮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면 '핑계'를 만들기 시작한다. 때로는 '모르는 일'로 만들기도 하고, 이는 사람이 없다면 '없었던 일'로 만든다. 사실, 나에게 불리한 일은 '없었던 일'이 가장 적당한 해답이다. 하지만 인간이기에 또한 죄책감을 갖는다. 죄책감은 억누를수록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된다. 죄를 짓는 방법이 늘어난 만큼 다양한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사회는 분명, 어떠한 관계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03학년이 아직 학교에 다니는 일은 쉽게

볼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처음 학교를 오르며, 나 자신도 8년을 학교에 남게 될 줄은 몰랐지만, 막상 떠나려니 섬뜩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나에게 학교는 20대의 보금자리와도 같은 곳이었다. 휴학기간 중 모두가 힘들게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가족, 친구, 애인보다도 돌아가서 배울 학교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정작 돌아온 학교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누구보다 행복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 취업과 졸업이 뒤엉킨 이곳이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포근한 곳이었다. 이 기회를 빌려 해 대접해주느라 힘들었던 국문과 후배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못한 소설이지만 맞춤법도 잘 모르던 세네기를 소설 한 편 써낼 수 있는 '국문인'으로 만들어주신 한국어문학부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시 부문 기작 |

시 부문 심사평

아쉬움을 담아
격려의 메시지를 띄운다



신경림
(시인, 동국대 석좌교수)

예심을 거쳐 올라온 작품 중에서 '불새' 이희상(부동산 3), '차마고도' 정유나(패디 4), '한가위' 김선영(한국어문 3), '비바람' 강한규(산공 4) 등 네 학생의 작품이 읽혔다. '불새'의 작자는 어린티가 가지지 않고는 있었지만, 무엇인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어느 정도 형상화하는 능력은 있어 보인다. 네 편 중 특히 '여기 내 앞에 한 사람'은 운동주의 '자화상'을 연상시키는 면이 없지 않으나, 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상당 수준 호소력을 얻고 있다.

력은 있어 보이고, 맑은 마음씨 같은 것도 느껴진다. 특히 '크리스마스 트리'는 발상이 꽤 신선하다. '한가위'는 어떤 면에서 소재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솜씨가 상당히 능숙하다. '네가 오늘 아침 버스를 놓쳤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었던 것들'에서의 비 오는 아침의 정경 소묘도 상당히 빛난다. 우리나라 좋은 시를 좀더 많이 찾아 읽으면 앞으로 좋은 시를 쓸 수 있을 것 같다.

여기 내 앞에 한 사람

이희상

내 앞에 한 사람이 서있습니다.
나와 어딘가 닮은 듯 해 보여
피식 웃어 봅니다.
그도 피식 웃습니다.

나의 생각을 읽은 듯 해 보여
미간을 찌푸려봅니다.
그도 미간을 찌푸립니다.

아무한테도 내 마음 보인 적 없었는데
그가 나의 마음을 비추어봅니다.

그도 이미 사랑을
그도 이미 추억을
그도 이미 인생을
그도 이미 고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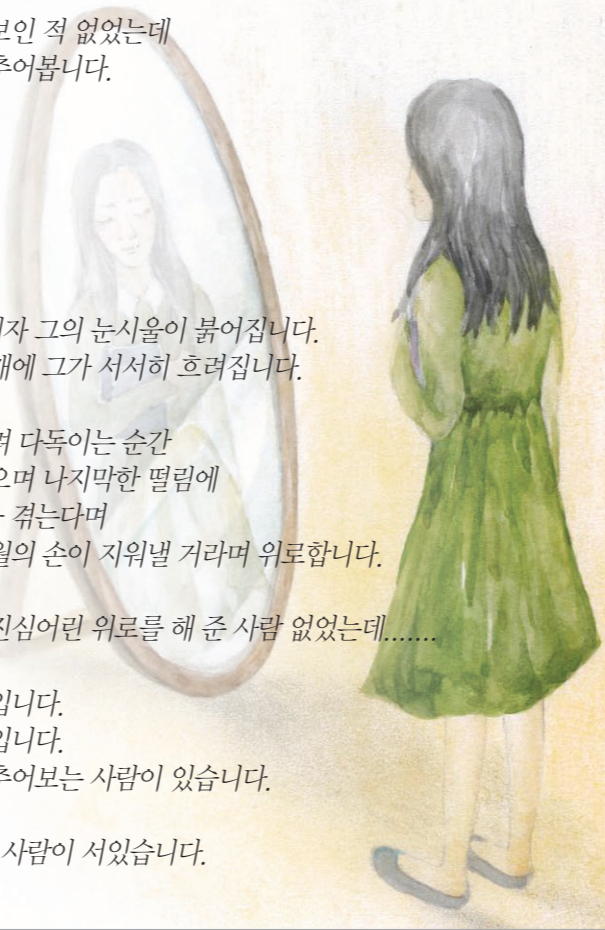
동정의 시선으로 바뀌자 그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나 또한 눈동자의 안개에 그가 서서히 흐려집니다.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려 다독이는 순간
그가 나의 손을 맞잡으며 나지막한 떨림에
누구나 그렇게 아픔을 겪는다면
그리고 그 아픔은 세월의 손이 지워낼 거라며 위로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해 준 사람 없었는데.....

그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나도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내 감감한 마음을 비추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내 거울 앞에 그 사람이 서 있습니다.



분홍구두

정유나

어릴적 새로산
새하얗게 반짝반짝 거리는 내 분홍구두도
튼튼한 동생의 운동화도
어디론가 데려가 주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다.

새신발은 날개와 같아
가고 싶은 곳에 다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다 이뤄 줄 것 같았다.

그 두근 거림을 잊은지 너무 오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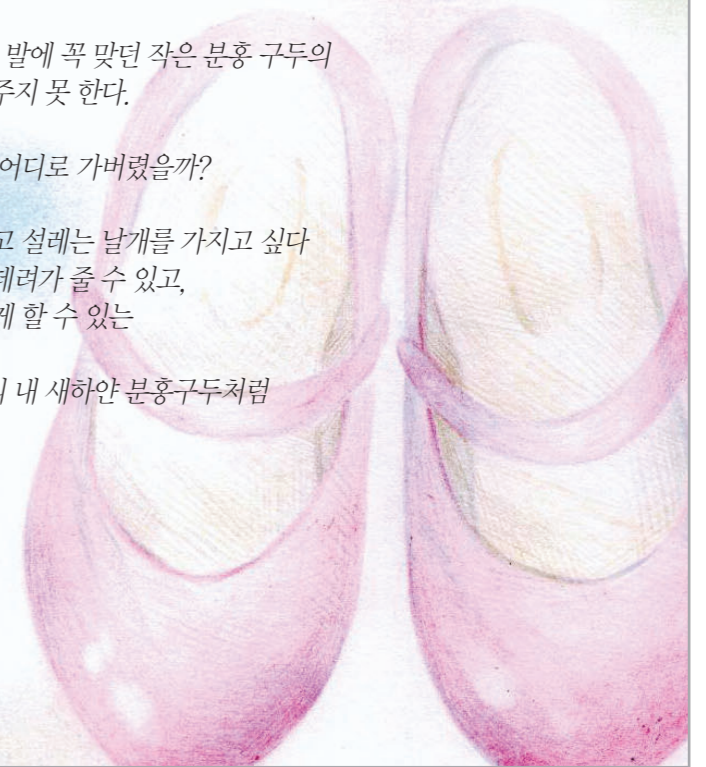
신발장 한 가득 채운
예쁜 구두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시절 내 발에 꼭 맞던 작은 분홍 구두의
설레임을 주지 못 한다.

내 날개는 어디로 가버렸을까?

더 튼튼하고 설레는 날개를 가지고 싶다
어디든지 데려가 줄 수 있고,
나를 꿈꾸게 할 수 있는

어린시절의 내 새하얀 분홍구두처럼



시 부문 당선소감



이희상(부동산 3)

공모전에 낼 마지막 시를 완성할 때만 해도 바깥 풍경은 단풍으로 물든 가을이었는데 지금은 벌써 차가운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12월이 다가오면서 올 한해를 조금씩 마감하고 보내려 하는데 이런 뜻밖의 기작 당선소식에 기쁘기도 하고 조금 어색하네요.

평소 생각이 많은 성격이라 혼자 있을 때나 길을 걷거나 노래를 들으면서 이것 저것 생각하다가 가끔 글로 옮겨 적곤 했는데 우연히 학교 벽보에 붙은 한성문학상 현상공모를 보고 시 부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감사의 글

입니다. 순수한 감정이 시를 쓰는데 있어 서 좋은 재료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 부문 당선소감



정유나(패디 4)

분홍구두는 여자아이가 처음가지게 되는 성 정체성의 수단으로 상징된다고 생각합니다. 분홍구두로 시작해서 점차 더 높고 아름다운 가진 구두들을 소유 하려고 합니다. 높고 아름다운 구두들은 그 구두를 소유한 시간만큼은 나를 아름답게 해줄 수 있지만, 그건 단순히 외양

소중한 설렘을 추억하며

적인 만족에 그칩니다. 아찔한 하이힐의 고통 속에 처음신었던 낯지만 빛나던 분홍구두가 주었던 순수한 소망들과 지금은 잊었던 설렘을 기억해 냅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사온 작은 분홍 구두에 흠집이 날까 매일 닦았던 기억이 있나요? 단순히 마음에 안드는 친구가 있으면, 그 아이의 구두를 일부러 밟거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는 그러면 자신이 다친 것보다 더 슬퍼합니다. 세상에 그 구두는 단 하나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를 걸을 때도 발걸음은 최대한 속너처럼 걸었고, 더이상 듣는 꼬마들과 싸우지 않았습니. 길 위를 걸을 때 나던 경쾌한 울림은 아이스크림 먹는 것 보다는 흥겨웠습니다. 구두에 어울리는 원피스를 입고 흥얼거려던 멜로디와 웃음소리가 기억납니다. 가장 순수하고 두려움을 몰랐던 그 시절엔 만화 주인공처럼 '어떤 누구'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녀가 자라가면서 분홍구두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뽀빠이의 시금치처럼 시너지 효과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English Lounge 동계 Group Speak 모집

	시간	월, 화, 수, 목, 금 (주 5회)
오전(8팀)	9:30~11:00(90분)	Group A, B, C, D
	11:00~12:30(90분)	Group E, F, G, H
오후(5팀)	1:30~3:00(90분)	Group I, J, K
	3:00~4:30(90분)	Group L, M

수업기간 : 2012년 1월 9일 월요일 ~ 1월 20일 금요일 (2주간)
 신청기간 : 12월 19일 ~ 12월 30일까지
 인 원 : 한 그룹 당 최소 4명 ~ 최대 6명
 신청방법 : 잉글리쉬 라운지 홈페이지에서 지원 양식 내려받기
 → 잉글리쉬 라운지로 방문 제출 또는 잉글리쉬 사운지 홈페이지
 (www.hansung.ac.kr/~elounge) Group speak 란에 업로드
 ※시간변경, 중복지원 불가



의 화 정



이재문 교수 (멀티미디어공학)

올해도 어느 덧 한 달 남은 요즘, 날씨가 추워져도 부족 추워졌다. 이러한 시기에 대학가의 화두는 단연 취업이다. 지난 수년간 대학가의 지속적인 화두 중의 하나는 대학생 취업난이다. 소위 '청년 실업'이라는 대학생 취업난은 너무나도 단순한 수요 공급의 불일치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찾는 일도 쉽지 않을 것 같다.

먼저 일자리 공급의 측면에서 보면 고학력으로 인한 고임금 구조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국외로 이동해 가고 있고, 수요적 측면에서 보면 맞벌이는 오래전의 일이다. 심지어 외국처럼 투잡(two job)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것은 잡셰어(job share)를 해야 하고, 평생직장이 보장 안 되는 사회에서 필연적 현상이다. 취업에서도 승자다식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 취업이 이중고를 겪는 이런 상황

에서 최근 교과부는 퇴출대학 선정의 중요한 지표로 대학생 취업률을 삼았다. 전인교육, 상아탑 등의 명분으로 학생들의 취업에 한걸음 물러서 있었던 대학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다행히 우리대학은 그동안 취업지원팀을 운영하면서, 학생들 취업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다. 한성취업박람회, 집중면접프로그램, 취업영어프로그램, 취업지원금제도 및 국내외 인턴프로그램 지원 등이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의 프로그램도 그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결과에 따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런데 대학생 취업난 속에서 취업의 당사자인 학생들을 보면 취업의 심각성을 알고나 있는지 의심이 때때로 있다.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자기계발 등 다양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부 학생들은

4학년이 되도록 이력서 한번 작성해 보지 않는가 하면, 아무리 영어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여도 그냥 흘려버린다. 졸업생과의 만남을 통하여 인적 네트워크라도 연결시켜주기 위하여 학과에서는 부단히 노력하나 정작 당사자들은 냉담한 경우도 빈번하다. 또한 극히 소수이기는 하나 대학도 마치 고등학교 졸업처럼 시간만 지나면 졸업하는 것이고, 졸업 후부터 다시 취업 학원을 다녀서 취업을 하겠다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다. 참으로 안이한 생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다.

또 지금까지 대학당국의 취업지원 노력의 적다고는 할 수 없으나 4학년이 집중되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취업준비가 안 된 학생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하여도 그것은 그림에 떡일 뿐이다. 이력서에 채워 넣어야 할 콘텐츠가 없는 학생들에게 이력서 쓰는 방법의 지원은 아무

런 소용이 없다. 제대로 된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저학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학당국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것을 일깨우고 이끌고 나갈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하나의 예로 다양한 취업 성공 모델을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도 있다.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의 4년 동안의 교과과정 및 비교과과정 이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취업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도 그러한 모델을 따라 4년을 보낸다면 그 모델이 취업한 규모의 회사에 취업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이제 대학생 취업은 학생만의 일이 아니고 대학과 학생들의 공동 과제가 되었다. 대학은 학생들을 이끌 확실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학생들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에 충실히 참여한다면 분명 취업에 성공하는 한성인들이 될 것이다.

한성대신문에 거는 기대

1976년 창간한 한성대신문이 3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35주년이 되기까지 신문사를 거쳐간 모든 기자들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다. 35년의 긴 세월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면서 오늘날 이렇게 한성인의 눈과 귀가 될 수 있었음은 큰 자랑거리이고 자부심을 느껴도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학신문들의 환경을 살펴보면 미래가 밝은 것만은 아니다. 우선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이 독자들의 관심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과거 학내 소식의 독보적 존재였던 대학신문이 최근 인터넷 등 새로운 미디어가 대학신문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큰 이유는 우수 기자의 발굴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요즘 학생들은 취업전쟁, 개인주의 성향으로 기자 생활보다는 취업준비 등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 학보사 기자를 외면하고 있다.

한성대신문의 사정도 다른 대학신문의 환경과 별 차이가 없다. 격주로 발간되어 배부되는 신문이 며칠씩 신문대에 쌓여 있는 것은 쉽게 볼 수 있으며 매 신문마다 나오는 뉴스기사 모집 광고에도 신문사 문을 두드리는 학생들은 극소수다.

그렇다고 대학신문 없는 대학 생활을 상상할 수 있는가? 지상방송, 케이블 TV 등 수많은 영상매체가 있다고, 신문이 없는 사회를 떠올릴 수 있는가? 한성대신문은 신문사 주간과 수의 소유도 아니고 신문사 기자들 소유는 더욱 아니다. 한성대신문은 한성대 대학생 및 교직원들의 소중한 자신이자 역사의 기록이다.

대학당국에서 생산되는 문서들은 역사 기록으로써 한계가 있다. 문서는 보존기간이라는 것이 있으며, 그 내용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성대신문은 보존기간이 무한대이며, 대학의 중요한 일에서부터 사사로운 개인의 일까지 기록되어 그 내용에 제한이 없다. 우리가 한성대신문을 포기해서는 안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이다.

예나 지금이나 무관심은 가장 무서운 파괴자라고 한다. 한성대신문은 한성인의 관심없는 존재하지 못하고, 아니 존재할 필요도 없고 존재하여서도 안된다. 한성인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 편집할 때 한성대신문은 존재할 이유도 있고 발전해 나갈 것이다.

한편으로 한성대신문사도 자기 발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신문으로써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며, 외부적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의 시대가 오래전부터 도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이매체에만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만족에 빠져 있다는 증거이다. 디지털 매체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극복하여야 하는 문제가 매우 크고 단순히 한성대신문사 자체의 역량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물수목 작은 것부터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제 35주년을 지났으니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불혹의 나이도 눈앞이다. 그때에는 보다 더 큰 사랑을 받는 한성대신문이 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기 바란다.

기자만난사람

댄스의 새 얼굴이 몰려온다

댄스동아리 NOD 회원 이환승(기계 3) 학생을 만나다

지난 13일 홍대의 한 클럽에서 우리학교 댄스동아리 NOD의 제15회 정기공연이 열렸다. 출연진의 공연은 너무 열정적이어서 당장 팬이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 이 날 공연에 함께했던 NOD 회원 이환승(기계 3) 학생을 만나보았다.

이전까지 NOD의 정기공연은 창외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처음으로 클럽을 대관해 큰 규모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환승 학생은 "유명한 프로댄서팀을 게스트로 초청하고 회원들이 돈을 모아 이벤트 상품도 준비했다. 개인적으로는 정기공연 첫 참가라 긴장을 많이 했다. 다리를 너무 떨어서 춤을 추지 못할까 봐 걱정했다."고 말하며 웃었다. 또 "첫 외부 정기공연이라 사람이 없을까봐 걱정을 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관객이 많이 몰려와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을 느꼈다. 신입생들이 춤에 대한 열정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정기공연을 마친 소감을 밝혔다.

연예인들의 가요 안무가 아닌 스트리트 댄스를 위주로 편성한 정기공연의 무대편성은 신선함으로 다가왔다. 특히 회원들의 춤 동작이 상당히 보였다. 어느 정도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연습이 필요했을 것 같다고 묻자 그는 "일단 매일 출석해 기본기를 쌓

는 것부터 시작한다. 단체연습 시간은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갖고, 주말에는 고학년 선배와 함께 연습한다."고 답했다. 또한 체계적인 강습을 원하는 회원에 대해 프로댄서를 초빙해 실력을 키우는 시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엄격한 연습이 오히려 춤에 대한 열정을 더 키우기도 한다"고 말했다.

매 주말마다 학교에 나와 고학년 선배와 함께 연습하는 일이 신입생에게는 고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을 붙잡아놓는 NOD만의 매력은 무엇일까. 이환승 학생은 "우리는 졸업 후에도 교류를

지속한다. 공연이 다가오면 다들 민감해져서 엄격해지지만 평소에는 위아래가 없다 싶을 만큼 친하게 지낸다."며 선후배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드러냈다.

NOD는 동아리평가에서 늘 상위권에 위치한다. 이는 학교 내부 활동뿐만 아니라 활발한 대외활동을 나간 덕분이다. 이환승 학생은 "외부로 공연을 관람하러 가는 경우도 많지만, 직접 창조공연을 나가기도 한다. 1년에 5-6번 정도로 꽤 많은 편이다."라고 답하며 "일마 전에는 삼선동 선너축제에 창조 공연을 갔다. 우리의 공연을 보고 흥이 나신 할머

니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같이 춤을 췄는데, 우리보다 더 박자감이 좋으셔서 놀랐다."고 일화 하나를 풀어놓았다.

한편으로 이환승 학생은 "NOD 출신 선배들 중에는 춤 동아리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다. 댄서들에게 이름만 말하면 다 알 정도"라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는 "스트리트 댄스라는 큰 행사에서 공연을 한 적도 있다. 프로팀이 많이 나오는 행사에 아마추어팀으로 출전하기 쉽지 않은 행사"라며 자부심을 보였다.

오지영 기자 guiyomee@hansung.ac.kr



기자수첩

공약 Ctrl+C, Ctrl+V



후보자들과 솔한 만남을 가졌다. 글을 쓸 때는 되도록이면 같은 서술어를 여러 번 등장시키지 않는 것이 좋지만 유독 선거 기사는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20개 남짓한 선분이 모두 비슷비슷한 공약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지난 호 화과별 선거 기사를 살펴보면 모두 17개의 선분이 출마했다. 이 중 '선후배간 교류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선분은 7개이다. '소모임 및 스터디 지원'은 6개, '학회실 환경개선'은 무려 10개나 된다. 이렇게 많은 선분이 동시다발적으로 학회실 환경개선을 약속했으니, 학회실 환경 미화 콘테스트라도 열어아할 판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경선을 벌인 선분에서는 위 세 개의 공약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영어영문학부들 예시로 들자면, 이민기 후보 측에서는 ▲봉사활동 지원 ▲전공도서 보상판매 등을, 심광보 당

선자 측에서는 ▲중고도서 커넥트 ▲전공도서 제본 등의 고심한 흔적이 묻어나는 공약을 준비했다. 단선은 곧 당선이라는 몇몇 타 학과 후보들의 단일한 생각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다. 심지어 선거를 치르지도 않고 학생회 간부직을 세습하는 학과도 있다. 나는 이들에게 '학회실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묻고 싶다.

혹자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닌다. 반면 별 생각 없이 선거에 도전한 이들에게 학생회는 '권력과 장학금을 얻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은 듯 보인다. 여기에 '광범' 점사 물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회실은 덩이다. 아마 이들은 학생들이 투표 불참으로 응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모양이다.

28일에는 총선 후보자들의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총대의원회에 출마한 두 선분이 준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나머지 공약도 역대 총대의원회가 내세웠던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부디 대의원들은 어떤 선분이 공약 실현 방안을 깨달았는지 준비했는지 따지는 눈으로 지켜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

오지영 기자 guiyomee@hansung.ac.kr

가로세로

10x10 crossword puzzle grid with numbers 1-10 indicating starting positions for words.

정답자 발표 김호준(행정 1) 010-XXXX-6008 박민정(한국어문 1) 010-XXXX-5204 서훈(한국어문 1) 010-XXXX-1827

학과(학년): 이름: 연락처:

이번 신문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기사는 무엇인가요? 그 기사의 소감을 적어주세요.

가로 세로

- 1) 케이블 TV와 위성방송, IPTV 등을 통하여 뉴스·드라마·교양·오락·스포츠 등 모든 장르를 방송하는 채널, 12월 개국을 앞두고 있다.
2) 경기에서 얻은 점수를 게시하는 판
3) 약기 따위를 다룰 때나 어떤 운동을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기술
4) 들어갈수록 점점 재미가 있음
5) 'Wallstreet', 미국의 장기 경기장체에 반기를 든 대학생들의 시위가 발생한 곳
6) 의결한 내용을 적은 글
7) 물건의 무거운 정도
8) 운영이나 운수가 막혀오는 기세, 오늘의 OO.

- 1) 오이를 심으면 반드시 오이가 나온다는 뜻으로, 원인에 따라 결과가 생김을 이르는 말
2) 신성한 지역
3) 긴 날랜지의 중간을 괴어 놓고 양쪽 끝에 한 사람씩 올라 서서 번갈아 뛰어 오르는 우리나라 고유의 놀이
4) 어떤 생물체가 태어난 후에 경험이나 교육에 의하지 않고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능을 수 없는 감성이나 중독
5) 형벌의 집행 기간
6) 1953년에 휴전 협정이 이루어진 곳, 경기도 파주에 있다.
7) 회의에서 제출된 의안을 합당하다고 결정할, FTA OO.
8)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소문
9) 돼지 창자에 쌀과 야채를 섞어 넣고 밀려가며 냉동시킨 동물의 전투사냥(기사원조).

정답자에 한해 추첨하여 문화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지난해 정답자는 연락 후에 신문사로 와서 상품권을 받아주세요. 문의 : 한성대신문사(02-760-4186)

한 줄 댓글

Q. 추운 겨울을 보내는 나만의 방법은?

- 저는 얼마전에 전기장판을 마련했습니다. 따뜻한 이불속에 들어갈때마다 행복해요. 김선영(한국어문 3)
- 수업 시작 10분 전 이번에는 한성대입구(삼선교)입니다. 이자연(경영 1)
- 추울땐 집에서 방콕! 하는게 제일이지요 'b' 소혜정(지정 3)
- 히트택 내복을 위 아래로 꼭꼭 챙겨입어요^^; 정승원(영문 2)
- 헬스장에서 운동 한시간 하고나면 추위가 가서요! 이휘(인테리어 3)
- 여자친구와 크리스마스, 연말연시를 보내요 권경렬(한국어문 4)
- 엄마한테 성적표를 보여드립니다! 등쪽에 따뜻한 단풍이 새겨집니다. 추대호(무역 2)
-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것입니다. 마음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브라질 지역봉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장재혁(경제 1)
- 집에서 커피를 한 잔 타먹으며 스티브즈 책 읽습니다. 이대희(한국어문 4)
- 전기장판 위에서 이불을 덮고 글을 써주세요 tv 시청해요~ㅎ 박이름(무역 3)
- 한성대신문 1~458호를 다 읽으며 보냅니다 김상근(경영 2)
- 열심히 아바바이트하면 추운지도 모르겠더라고요ㅠㅠ 흑흑ㅠㅠ 윤영아(경영 2)
- 이별치냉! 스키장과 눈썰매장으로 버터냅니다 오재혁(기계 2)

이번 호 당첨자는 김선영(한국어문 3), 이휘(인테리어 3), 윤영아(경영 2) 학생입니다. 당첨자에게는 문화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당첨자는 연락 후에 신문사로 와서 문화상품권을 받아주세요.

모든 한성인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한성대신문사에서는 독자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면에 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내용이든 신문 지면을 통해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신문사로 보내주세요.

- 소재 예시
- 학교에 건의하고 싶은 것
- OO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우리 동아리를 자랑합니다!'
- '나는 고발한다, OO를...'
- 한성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영화, 여행지 등

원고 매수: 200자 원고지 4~5매(A4의 절반 정도)
보내주실 곳: press@hansung.ac.kr
기타 문의: 02) 760-4186, 010-4534-8682

보내주신 글이 채택돼 지면에 실리면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되니 성명, 소속, 연락처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성대신문사

질병의 수준에 이른 마음의 문제, 우울증

가벼운 우울증도 적절한 시기의 치료가 중요해

A씨(20대 후반, 무직)는 취업 실패로 인한 우울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종일 커피만 마시고 식사시간엔 먹는 시늉만 하다 밤에 폭식을 하는 등 과식과 금식을 반복했다. 이유없이 울화통이 터져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이러한 증세로 정신과치료를 고민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에서 심한 우울증과 경한 우울증을 모두 포함해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49만명에 달한다. 이 말대로라면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한 명 꼴로 우울증 환자인 셈이다. 하지만 이 자료는 병원에 찾아온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병원을 오지 않은 사람들을 고려한다면 우울증 환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우울'이란 단어는 '우울한 증상'(depressive symptoms)으로 기분이 가라앉아 활기가 없는 모습을 가리키지만 의사는 우울증이란 단어에 '우울장애'(depressive disorders)라는 보다 엄밀한 속뜻을 부여한다. 이 말은 우울 증상이 과도해서 질병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우울증은 단순히 감정적 저하뿐 아니라 사고, 행동, 수면, 식욕 등 여러 가지 정신 기능과 신체 기능에 포괄적인 장애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우울장애라는 용어가 널리 통용되지 않고 있어 이전부터 쓰여 온 우울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나 정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우울한 증상'과 병적인 '우울증(우울장애)'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이를 증상만 가지고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정상적인 슬픔이

나 우울한 기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곱하게 마련이다. 몇 주 안에 별 탈 없이 회복된다면 병적인 우울증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병적인 우울증상은 정상적인 우울에 비해 지속기간이 길며 보통 6개월이 넘게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가장 궁금했던 우울증』(송후림,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과)에 따르면 우울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사람에 따라 다양하지만 뚜렷한 유발요인의 유무에 따라 ▲직접적인 유발 요인에 반응하여 생기는 우울증(반응성 우울증) ▲특별한 유발 요인 없이 생기는 우울증(내인성 우울증)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여기서 유발요인이라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이다. 주로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했거나 대인 관계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신체 질환이나 과로, 실직이나 생활고 등 경제적 고충으로 인해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긴장과 불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병적인 우울증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특별한 유발 요인이 없는데도 저절로 발생하는 우울증도 있다. 이러한 우울증을 내인성 우울증(endogenous depression)이라고 한다. 내인성 우울증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갈등에 의해 유발되기도 하고, 과거에 받은 스트레스 경험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자극을 줌으로써 촉진되는 것일 수 있다.

B24세, 대학생씨는 "어느 순간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한 기분이 몰아닥쳐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자꾸 든다. 우울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기분을 떨리기 위해 영화를 보러 간다든가, 대형마트를 돌아다니는 등 색다른 일거리를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뇌에는 무수한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복잡한 회로를 형성하고 있다. 뇌의 활성화는 신경세포들 사이에 신호의 흐름이 얼마나 순조롭게 일어나는 데 달려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 뇌의 신경전달물질의 양이 변하거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때가 있다. 그러면 신경세포들 사이의 흐름에도 교란이 생겨 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정신질환의 원인이 된다.

최근 연구에서 우울증 환자에서도 신경전달물질의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우울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신경전달물질은 ▲세로토닌(serotonin) ▲노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 또는 노어아드레날린(noradrenaline) ▲도파민(dopamine)이다.

우울증 상태가 지속될수록 신경세포의 기능이 점점 떨어진다. 처음에는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된 반응성 우울증이라고 해도 이때 받은 스트레스는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야기한다. 그리고 이 변화가 결국 신경전달물질 체계나 신경세포 내의 신호체계를 변화시켜 신경세포를 감소시키거나 시냅스*를 감퇴시킴으로써 나중에는 특별한 스트레스 없이도 우울증이 쉽게 재발하도록 만들어진다. 우울증 자체가 뇌를 변성시켜 우울증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불러오는 것이다. 때문에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복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울 증세를 겪고 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할까.

우선 이 문제가 정신질환에 해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격적인 문제나 주변 환경과의 적응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비롯된 것인가 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판별하는 것은 정신과 의사가 적절한 경우가 많다. 마음의 문제가 질병의 수준에 이르렀다면 상담이나 심리적인 치료에 앞서 적절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오늘날에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발달하면서 정신과의사,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직업에 따라 각자의 역할이 분담되고 있는 추세이다. 약물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정신과 의사와 있고 정신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정신과의사도 있다. 최면이나 인지행동치료 등의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정신과의사도 있다. 이 때 정신과 의사는 자신이 직접 치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상황에 대해 가장 적합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상담이나 정신치료와 같은 심리학적 접근이 더 필요한 환자도 있고 약물치료나 전기경련요법 같은 의학적인 치료가 더 우선되어야 하는 환자도 있다.

김은정(성원 클리닉)정신과 전문의는 "우울증은 여러 신경전신과 질환 중 재발이 잦은 질병이다. 우울증의 잦은 재발은 치료를 어렵게 한다. 개인의 건강보험기록은 개인이나 단체가 임의로 열람할 수 없으며, 치료기록은 본인이나 위임장 없이 열람되지 않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꼭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여인천하

남성중심 사회의 이중성을 고발하다

- 자유주의자 나혜석(1896~1948) -

잡 나가는 남자연예인에게 어떤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물었더니, "마음 착한 현모양처"란다. 해뉘는 듯 보이는 현모양처는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유효하다. 다만 과거에는 살림만 잘하면 되었지만 요즘에는 전문직종의 커리어까지 따라주어야 한다. 1920~30년대 신교육을 받은 신여성이 등장하였지만 그녀들의 삶의 목적은 결국 현모양처가 되어 시집 잘 가는 것이었다. 여기에 반기를 들며 여성들의 자의식을 일깨운 여성이 있었으니, 바로 나혜석이다.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동경 유학까지 다녀온 최초의 서양화가인 나혜석, 가는 곳마다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그녀, 김우영은 5년간의 구애 끝에 그녀와의 결혼에 골인한다. 변호사이자 외교관이었던 김우영과 안정된 결혼을 선택하면서 그녀의 삶은 승승장구, 개인전시회도 성공적이었다. 1927년 남편과 함께 만주를 거쳐 러시아,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 한국 여인 최초로 유럽여행의 꿈을 이루었다. 그녀는 파리에 혼자 남아 그림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 남편의 친구인 최린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 최린은 천도교 지도자로서 3.1운동 33인의 민족대표 중 한사람이었고 문화예술에도 조예가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불행의 시작이었다.

불륜사실이 남편 귀에 들어가 그녀는 결국 이혼하게 되는데, 이후 최린과의 관계도 깨져 혼자 되었다. 이혼하자 남편 김우영은 4개월만에 재혼한다.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나혜석은 한국 남자, 한국 사회의 이중성, 성에 대한 편협한 사회인식에 몸부림치게 된다. 이혼 후 1934년에는 공개적으로 <이혼 고백서>를 잡지 '삼

천리'에 올린다. "조선 남성들 보시오. 조선의 남성이란 인간들은 참으로 이상하고, 잘나건 못나건 간에 그대들은 적실. 후실에 몇 집 살림을 하면서도 여성에게는 정조를 요구하고 있구려. 하지만 여자도 사람이외다! 한순간 분출하는 감정에 흠뜨려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는 그런 사람이외다. 남편의 아내가 되기 전에 내 자식의 어머니이기 전에, 첫째로 나는 사람이외다. ... 조선의 남성들이 그대들은 인형을 원하는가, 늙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당신들이 원할 때만 안아주어도 항상 방긋웃기만 하는 인형 말이오. 나는 그대들의 노리개를 거부하오. 내 몸이 불꽃으로 타올라 한줌 재가 될지언정 언젠가 먼 훗날 나의 피와 외침이 이 땅에 뿌려져 우리 후손 여성들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라"

조선사회는 여자에게는 정조를 강조했고 남자들은 첩을 둘 수 있었다. 사실상 조선은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사회였다. 그것이 단지 남자에게 국한되었을 뿐이다. 과부는 재혼할 수 없었고, 남편이 죽으면 따라죽기까지 해야 열녀로 칭송받았다. 기부장제가 사라지지 않은 남성 중심사회에 도전한 나혜석은 전사에 가깝다. 하지만 이것은 불행의 시작이었다. 불륜사실이 남편 귀에 들어가 그녀는 결국 이혼하게 되는데, 이후 최린과의 관계도 깨져 혼자 되었다. 이혼하자 남편 김우영은 4개월만에 재혼한다.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나혜석은 한국 남자, 한국 사회의 이중성, 성에 대한 편협한 사회인식에 몸부림치게 된다. 이혼 후 1934년에는 공개적으로 <이혼 고백서>를 잡지 '삼

최선경 · '양을 낳은 후궁들', 저자

■ 서평-파워블로거의 지식충전, 감성충전

소요(逍遙)로부터 시작되는 인생의 즐거움



윤종현 필명 '꽃다지' 네이버 책 분야 파워블로거 (http://blog.naver.com/myplanup)

올해 초 장자 원전 읽기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 마음을 크게 먹고 시작한 일이었으나 장자의 사상에 대해 겨우 맛만 보는 데 그치고 말았다.

장자의 세계는 내면으로 들어갈수록 복잡 다단하다. 들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말장난 하는 것 같기도 하며, 무슨 말인지

「나는 장자다」 / 왕명 / 들녘

도통 종잡을 수 없기도 하다. 그래서 그 철학의 세계를 간파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번에 다시 펼쳐든 책은 왕명의 「나는 장자다」이다. 이 책은 원문에 대한 풀이가 아닌 저자가 재해석한 장자이다. 그것도 이리저리 한 눈치 보지 않고 독창적으로 풀이한 장자다.

저자는 아예 서문에서부터 대놓고 밝힌다. 나는 장자와 놀겠노라고 말이다. 저자는 책에서 소를 탄 노자에게로 달려가고, 나비가 된 장자에게로 펄럭이며 날아가듯 따라다녔다.

공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잠시 다른 사람에게 한눈도 팔고, 감히 장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단순한 원전 풀이가 아니라 장자 제대로 읽기다. 원전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뜻을 밝히고, 제자백가 시대 사상가들의 철학과 비교하거나 근현대 작가

들의 사상과 대비시킨다. 그래서인지 소요(逍遙)의 맛이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장자 사상의 모든 출발은 바로 소요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족스러운 만큼 여유롭고 즐거운 삶이 어디 쉽게 찾아오는가. 소요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생각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고, 삶에서 끊임없이 실천하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야 대이화지(大和化之) 할 수 있다.

대이화지는 문제를 넓게 바라보고 사소한 일에 연연해 다투거나 고민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소요하는 마음이 없다면 절대 그럴 여유도 없다. 이러한 마음가짐들이 모여 결국 장자가 말하는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성숙하고 따뜻한 청년 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 / 김애란 / 창비



박연주 필명 '참죽다' 네이버 책 분야 파워블로거 (http://blog.naver.com/golozoo3)

화자는 조로증 즉, 빨리 늙는 병을 앓고 있다. 주름이 지고 노인이 되고 행동이 불편해지는 조로증이라는 소설 속 장치는 아이의 성숙함을 현실화시켜준다. 열일곱이라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아이의 행동과 생각들을 빨리 늙는 병이라는 희귀질환을 만나면서 현실적 장치로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지나친 성숙함이 가지고 오는 거부감이 한결 쉽게 이해되기도 한다.

한국에서 청소년을 화자로 정한 소설들은 지나치게 화자들이 성숙하게 묘사되어있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그 나이는 그렇게 성숙한 나이가 아니다. 물론 인생이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오랫동안 고민할 나이는 더더욱 아니다.

그런 면들이 가끔 소설을 읽을 때 마치 잘 다져진 도로에 툭 튀어나온 돌맹이 하나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이 소설은 그 부분을 아주 영리하게 엮어간다. 게다가 그 성숙함이 회귀병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독자가 인식할 때 화자가 하는 대사들은 하나씩 감정의 문을 두드린다.

사실 이 소설은 성장소설이라고 보다는 청년소설에 가깝다. 성장이라는 테마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불같은 청년의 시점들을 다루고 있으니 말이다. 소설 속 화자의 청년과 화

자의 부모님의 청년이 교차하는 지점은 더욱 그러하다.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불치병에 걸린 아이를 기르며 삶과 전쟁 중인 어린 부모의 이야기나 열일곱이라는 풋풋한 나이에 병과 싸워야하는 화자의 이야기나 조금 특별한 청년일 뿐이다.

누군가는 이 소설을 읽고 삶에 감사해야 한다거나 주어진 삶에 충실해야 한다고 교훈을 얻을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소설의 끝부분에서 화자가 하는 이야기나 자신의 부모를 위해서 남긴 이야기는 그런 교훈을 슬쩍 알려준다. 하지만 나는 적어도 소설 속 재미를 그리고 이 소설에서 느끼는 지점을 거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한다. 청년소설답게 지나치게 열정적이고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그 무엇을 같이 보여줬으면 한다. 화자의 청년도 그 부모의 청년도 아름다운 청년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소설을 읽는 재미는 좀 더 색달라질 것이다.

글쓰기 상담 신청 안내

2011년도 2학기 한성대학교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에서는 본교 재학생들의 표현 능력 신장을 위하여 글쓰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재학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목 적 ◎

1. 면대면 상담을 통한 개별 학습자의 글쓰기 고민 해결
2.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사고능력과 표현 능력 향상
3. 리포트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능력 향상
4. 글쓰기와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 능력 향상

상담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 한성대학교 학부 재학생
2. 상담 기간 : 2011년 9월 5일(월) ~ 2011년 12월 9일(금)
3. 상담 영역 : 리포트, 프레젠테이션 문서, 서평, 칼럼 등 (논문, 자기소개서 제외)
4. 상담 내용 : 맥락 파악, 주제 이해, 아이디어 생성, 글의 전개, 문장 표현 등
5. 신청 방법 : ① writing center 홈페이지 상담의 메뉴에서 '상담' > 상담신청 클릭 (http://writingcenter.hansung.ac.kr/)
 - ② 상담 희망 일시 48시간 이전에 신청 (본인의 신청 확인은 MY PAGE)
6. 기타 문의 : 사고와 표현 연구실 (연구동 B101, ☎ 02-760-4354)

* 상담은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writing center 홈페이지 참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인생사 새옹지마. 어느 덧 30대 중반으로 접어든 한성대신문사, 그 동안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다. 신문사와 세월을 함께한 이들을 만나보았다.

이경훈 (무역 81) 6대 편집국장

8페이지 안착, 3:1 경쟁률... 격동의 80년대 출발선에서

1981년은 우리대학에서 처음으로 주간 학부 신입생을 뽑은 해다. 이전까지는 야간 학부만 있어 재학생 중에는 직장인이 많았다. 학보사제호를 '한성대학보'로 발행 기자도 마찬가지로였다. 81학번 이경훈 선배가 대학에 입학해 학보사에 입사했을 때, 2, 3학년 선배들은 대부분 직장인들이었다. 낮에 직장을 다니며 야간에 수업을 듣고, 신문도 발행해야 했기에 작업의 어려움이 컸다. 또 5기까지는 학도호국단(분단 상황을 준전시체제로 인식하여 정부가 중앙집권식으로 관리했던 학생훈련조직)의 학습·문예부 간부가 편집국장으로서 초빙돼 신문을 발행해 왔는데, 6기에 들어서야 학보사 기자를 정식으로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학보사에 상주하며 기자활동을 한 첫 번째 기수가 탄생한 것이다.

이경훈 선배는 그 당시를 "나라가 어수선한 시기였던 만큼 대학생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그만큼 신문 검열도 심한 편이었는데, 한편으로는 학교의 지원도 잘 받고 동기들과도 잘 맞춰 7기 신입생부터는 3:1의 경쟁률을 뛰어넘어 입사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고 학보사 기자 시절을 회상했다.

이 선배가 편집국장을 맡은 83년부터는 8페이지 발행이 안착된 시기였다. 이 선배는 "그 전까지는 한 달에 1회 4페이지 발행, 격주로 4·8페이지 발행이었다. 이때부터 주간교수를 통해 기자교육도 받았고, 기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 꾸준히 8페이지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술적으로는 연판 인쇄(글자를 뽑아서 위에 놓고 굵은 납을 부쳐 압력을 가하는 방식) 작업에서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는 시기였는데 연판 인쇄는 손이 많이 갔지만 그만큼 재미도 있었다"고 추억했다. 그는 특히 "설립자 김의형 박사의 부고 소식을 담은 호의를 발행했던 일, 발행 호수가 잘못 인쇄돼 배포하던 신문을 회수하고 재인쇄했던 일, 동문 탐방 취재를 갔던 일 등이 기억에 남는다"며 30년 전의 기억을 꺼내 이야기했다.

이경훈 선배는 "내가 대학에 다녔을 때 등록금이 35만원~40만원이었는데 편집국장에게는 35만원 정도의 장학금이 지원됐다. 금액으로 보면 지금이 훨씬 많겠지만"

비율로 보면 그때보다도 기자들의 복지가 못한 것 같다"며 "기자들의 처우도 개선되고 좋은 기자들을 키워내 더욱 질 좋은 신문이 발행되길 바란다"며 후배기자들을 격려했다.

김하늘 (한국어문 07) 32대 편집국장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던 날들

한성대신문사의 '서른'은 녹록치 않았다. 29기까지 이어져오던 기수는 30기와 31기가 채워지지 못한 상황에서 32기를 맞이한 것이다. 퇴임 후 다시 신문사에 복귀해 현재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김하늘 편집국장이 수습기자로 신문사에 들어왔던 2007년에는 회의테이블이 부족해 회의를 조별로 나눠서 할 정도로 신문사에 인원이 많았다고 한다. 그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인원이 많은 만큼 자연스럽게 사건사고도 많았던 시절"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김하늘 편집국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취재는 2008년 메이데이(노동절) 집회였다. 당시 규모가 엄청났던 만큼 정부가 단속을 심하게 했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그는 "전경과 노동자들 간의 대치가 심했다. 전경들이 곤봉을 들고 나를 쫓아오는데,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내 앞을 넘어선 여자를 타미어 골목으로 숨었다. 뒤를 돌아보니 나와 같은 선상에서 도망치던 사람들은 전경에게 구타당하고 있었다"며 집회 상황을 묘사했다.

또한 그는 "동기 중 한 명은 전경에게 방패로 맞고, 물대포에 맞아 흠뻑 젖어서 나타나기도 했다. 충격적인 집회의 모습이 우

86학번 박세훈 선배가 입학하던 당시, 다소 무료했던 학교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다른 아닌 신문사였다. 2차에 걸친 입사시험과 3:1의 경쟁률을 통과한 만큼 학보사에 대한 박 선배의 관심과 애정은 상당했다. 박 선배는 "현재 창의관 자리에 위치했던

신문사를 거의 집처럼 썼다. 밤새 기사를 쓰고 교정하다 잠든 일도 많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박 선배는 학보사 편집국장직을 수행하며 사회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그는 "학보사는 오픈이던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당시 혼란스러운 시대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곳을 돌리었다. 기자로서 능력과 책임감을 기르는 과정에서 신문사 선배들이 좋은 멘토가 되었다. 그때 체득한 소양은 현재까지도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선배가 신문사 생활을 할 당시에는 캠퍼스 근처에 전경이 상주할 만큼 학생들이 데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데모현장에 취재를 나갔던 경찰에 연행되는 일도 있었다. 그는 "좁은 유치장에 30명이 갇혀있었다. 식사로 나온 콩보리밥과 단무지 반찬이 그렇게 맛있게 느껴질 수 없었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박세훈 선배는 신문사 사가(社歌)를 작사·작곡하기도 했다. 그는 "전국 대학신문

는 동기도 있었다. 선배들이 위로 차 피맛골에 데려가 막걸리를 사했는데 그 날은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며 그 때를 회상했다. 가장 황당했던 기억으로 그는 수습기자가 사고를 치고 신문사를 나간 일을 꼽았다. 그는 "당시에 활동하던 수습기자가 취재를 안 하고 기사를 써왔다. 기사작성에 취재는 기본이라 당연히 했으리라 생각했는데, 신문이 발행되자마자 교내 부서 곳곳에서 항의 전화가 와서 진땀을 흘렸다"며 "지금은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에피소드지만 그때는 담당기자가 사고치고, 말도 없이 그만두는 바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당시를 추억했다.

편집장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그는 "편집국장을 하던 선배가 한 학기를 하고 그만두는 바람에 신문사에 들어온 지 1년 만에 편집국장이 되었다. 경험이 부족해 많이 힘들었다"고 어려웠던 시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후배들이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기자교육 때 점수가 낮으면 운동장을 뛰게 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욕심이 과했던 것 같다"며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렸다.

1999년 최승락 선배가 입학했을 당시, 우리학교는 발전을 위한 성장통을 겪고 있었다. 최 선배는 "당시 교내에서는 도서관을 포함한 몇몇 건물들의 신축 계획 논의가 활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부 학생들이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부족했던 실습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며 당시 학교 상황을 이야기했다.

교내 캠퍼스 분위기에 대해 최 선배는 "많은 학생들이 화과 공부 이외의 활동을

박세훈 (문정 86) 11대 편집국장

사회생활 밑거름 된 신문사 활동

박 선배가 학보사 편집국장직을 수행하며 사회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그는 "학보사는 오픈이던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당시 혼란스러운 시대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곳을 돌리었다. 기자로서 능력과 책임감을 기르는 과정에서 신문사 선배들이 좋은 멘토가 되었다. 그때 체득한 소양은 현재까지도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선배가 신문사 생활을 할 당시에는 캠퍼스 근처에 전경이 상주할 만큼 학생들이 데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데모현장에 취재를 나갔던 경찰에 연행되는 일도 있었다. 그는 "좁은 유치장에 30명이 갇혀있었다. 식사로 나온 콩보리밥과 단무지 반찬이 그렇게 맛있게 느껴질 수 없었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박세훈 선배는 신문사 사가(社歌)를 작사·작곡하기도 했다. 그는 "전국 대학신문

이 필요했다"며 이 때 쌓은 내용이 통번역이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후배 학생기자 한 명이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된 일이 있었다. 당시 후배 기자는 학교 근처에 사우지를 보유한 주인이 펜스를 치고 학생들 통행을 막은 행태를 고발하는 기사를 작성했다. 이 주인은 몇몇 단어를 꼬투리 잡아 '학생'을 중재위에 고발했다"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당시 '학생들을 위해 쓴 기사이니 담당하지'라는 다짐과 처음 겪은 송사로 인한 불안함 사이에서 고민했다고 한다. 그는 "중재위에 나가 진술 후 별다른 제재는 없었으며, 펜스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며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후배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을 내비쳤다.

박세훈 선배는 신문사 사가(社歌)를 작사·작곡하기도 했다. 그는 "전국 대학신문

최승락 (영문 99) 24대 편집국장

토론에서 중재위 회부까지

활발히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가 몸담고 있던 신문사 뿐 아니라 영화, 음악, 스포츠 등 다양한 동아리가 활동했다"며 학생들의 다양했던 관심사에 대해 말했다. 최 선배는 "2000년대 초에는 청년 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이 지금처럼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아, 학생들의 사회 참여 의식이 그리 높지 않았다. 또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매체가 지금처럼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며 당시 대학생들이 사회참여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설명했다.

최 선배는 '신문사' 하면 떠오르는 단어로 '토론'을 꼽았다. 그는 "8면 혹은 12면에 이르는 지면에 우리의 글과 사진으로 빠르게 채워야 했다.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동료들과의 토론, 취재 대상과의 토론, 독자들과 토론 등 작업 전반에 걸쳐 토론을 통한 소통



의 르네상스 시기가 바로 그 당시가 아니었나 싶다. '전국대학생기자연합'이라는 단체를 통해 각 학보사간의 교류도 활발했다. 이때 고려대 학보사를 통해 기사작성 매뉴얼을 접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 학보사에도 체계적인 기자교육 시스템을 도입했고, 사가를 만들게 된 것도 바로 이때"라며 탄생비화를 전했다.

임정구 (무역 94) 19대 편집국장

취재나 참여나 그것이 문제로다



어느새 동기들은 모두 떠나고 혼자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임 선배는 가장 기억에 남는 취재로 95년 민주노동당 출범식과 연대 사태 취재를 꼽았다. 임 선배는 "연대 사태 취재를 할 당시에 방송국, 영자신문사, 교지편집실을 비롯한 연합기자단을 꾸려 연세대 안으로 진입하여 취재했다.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일부 기자들이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며 기억을 떠올렸다.

임 선배는 취재를 나갔을 때 현장에 함께 동참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그는 "기자로서의 중립성과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동감해야겠다는 생각 속에서 많은 갈등을 했다. 실제로 종로에서 학생 운동 취재를 했을 때는 전경과 직접적인 마찰을 빚기도 해서, 선배들에게 혼나기도 했다"며 기자로서 느꼈던 갈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그는 "의정부에 위치한 기지촌 취재도 기억에 남는다. 한국전쟁 이후 어떻게든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여성들은 생계수단으

로 기지촌 생활을 선택했다. 어떤 이들은 미군 병사들과 연을 맺고 미국으로 건너가 성공한 삶을 살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미군의 스트레를 풀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고 심지어 살해당하기도 했다. 나이가 들어 홀로 생활하고 계시는 그 분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국 전쟁의 아픔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다"며 그 때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연대 사태 : 1996년 범민족대회에 남측대표로 간 한총련 학생들이 관문점에 들어오는 시점에 맞추어 통일축전을 열려고 했지만, 경찰의 진압으로 좌절돼 연세대를 거점으로 농성해 들어간 사건

한성대신문 35주년을 축하합니다




이재민
(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

앞으로의 신문사는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정보들을 많이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 본부와 학생들 사이에서 가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신문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쟁 미디어가 범람하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신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창수
(한국어문학부) 교수

신문사 창간 3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신문의 기능은 역시 강론직필 필요할 때 필요할 말들을 과감하게 하여 이제까지 그려왔듯이 한성 여론의 중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대에 걸맞은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 전달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지요? 무엇보다 많은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고 스스로 참여하는 한성만의 자랑스러운 신문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민
(학술자료팀) 팀장

한성대신문 35주년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신문사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실시간으로 학생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독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칼럼을 많이 실어서 신문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한성가족과 함께 성장해온 한성대신문이 독자와 함께 하면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조중업
(학사지원팀) 팀원

35주년을 축하합니다. 이제 신문사는 청년의 나이로 지나 장년의 나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문사의 역할은 더욱 크고 무거운 것입니다. 신문사는 한성대의 역사이자 산증인입니다. 또한 언론 기관으로서 바람직한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꼭 그 길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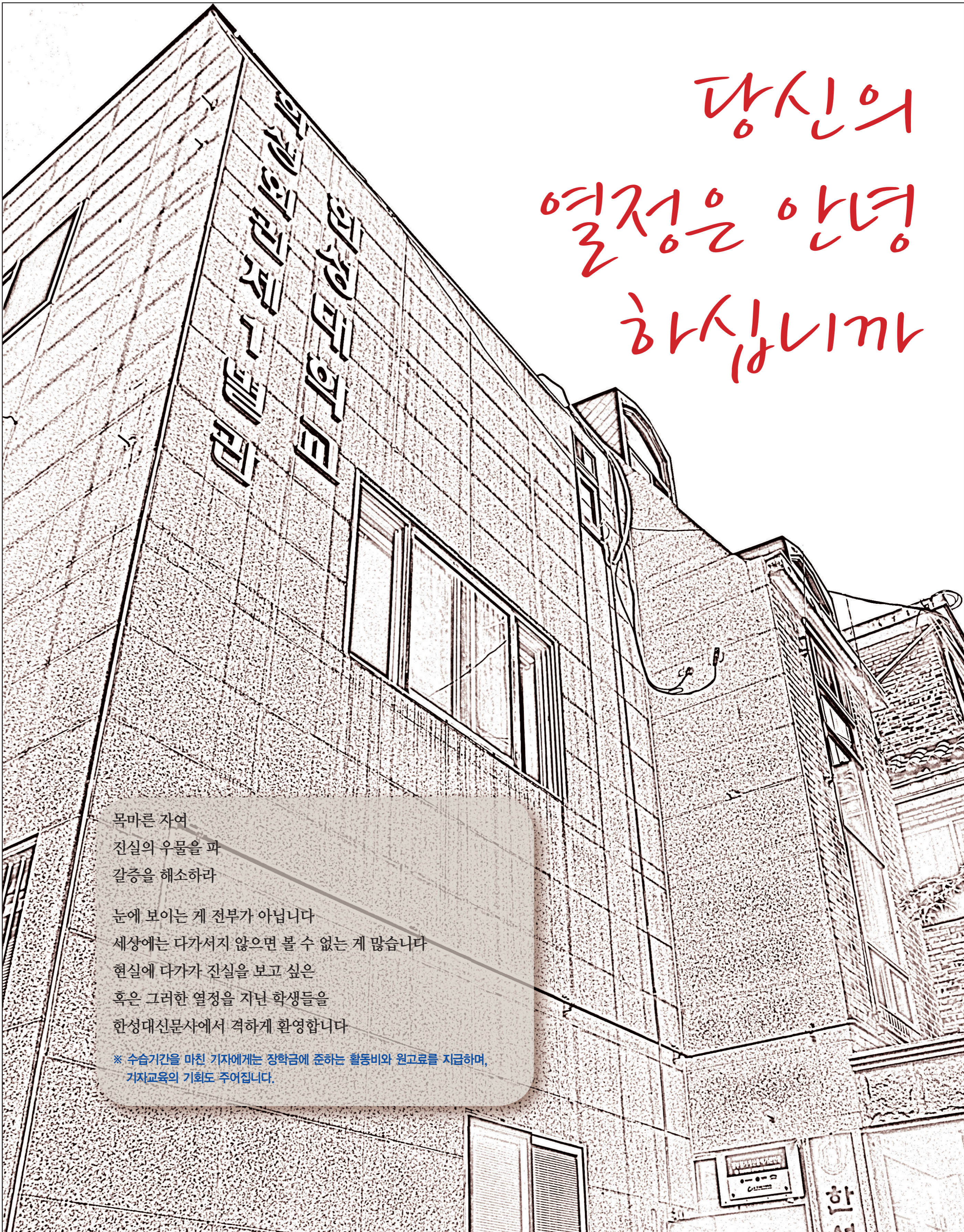
강범석
(경제 3) 학생

학내 언론으로서 중립을 지키려는 신문사의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학생회와 소통하려는 노력과 학내 여론을 수렴하려는 노력도 보기 좋았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열악하지만 환골탈태해서 보다 더 큰 학내언론의 활동 모습을 기대합니다.



홍재건
(의생물 1) 학생

35주년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신문사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많은 관심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역사 신문에 대한 많은 지원과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신문사 또한 인력 문제를 빨리 해소해서 더 나은 언론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열정은 안녕
하시겠습니까

목마른 자여
진실의 우물을 파
갈증을 해소하라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다가서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게 많습니다
현실에 다가가 진실을 보고 싶은
혹은 그러한 열정을 지닌 학생들을
한성대신문사에서 격하게 환영합니다

※ 수습기간을 마친 기자에게는 장학금에 준하는 활동비와 원고료를 지급하며,
기자교육의 기회도 주어집니다.